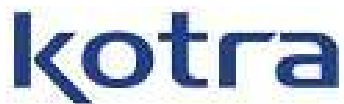


미얀마

정보수정일자: 2010. 1. 01

작성처: 양곤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3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5
주요 산업 동향 /8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5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7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9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0
대한수입규제동향 /21
관세제도 /21
주요인증제도 /22
지적재산권 /22
통관운송 /23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26
- 외국기업 투자동향 /28
- 우리기업 투자동향 /3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31
- 진출형태별 절차 /34
- 투자입지여건 /39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41
- 조세제도 /44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46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47
- 물가정보 /48
- 바이어발굴 /49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51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55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55
- 이주정착 가이드 /58
- 출장가이드 /60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75
- 유관기관 웹사이트 /75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 미얀마 연방(구 버마) / Union of Myanmar (Burma) - 7개 State와 7개 Division으로 구성 - 1989년 버마에서 미얀마(Strong & Fast 의미)로 국명 변경
위치	○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위치 ○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면적	676,577km ² (한반도의 약 3.5배)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4℃, 연평균 강수량 2,513mm) - 여름: 2월 말 ~ 5월 중순 - 우기: 5월 하순 ~ 10월 말(거의 매일 비) - 겨울: 11월 초 ~ 2월 중순(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유사)
수도	네피도(Nay Pyi Taw)
인구	5,737만 명(2008년도 정부 발표)
주요 도시	○ 양곤, 만달레이, 뵘마나, 빠떼인, 바고, 빼 등 - 양곤: 2005년 11월까지 수도였으며, 현 경제 중심지(교역의 80% 수행) - 네피도: 2005년 11월부터 행정부가 이전한 새로운 수도 - 만달레이: 제2의 도시로 중북부 경제 중심지 및 불교 중심지이며 영국 식민 통치 전 제국의 마지막 수도 - 빠떼인: 양곤에서 서쪽으로 160Km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도시로 쌀 및 수산물(새우) 생산 중심지
민족	버마족(70%), 소수족(산, 카렌, 카친, 몬, 친족 등 130여 종족, 25%) 기타 (중국계, 인도계 등 5%)
언어	미얀마어(정부, 기업인, 호텔 종사자들은 영어 구사), 소수민족 고유어
종교	불교 89.4%, 기독교 4.9%, 이슬람교 3.9%, 힌두교 0.5%, 토속신앙 1.2%, 기타 0.1%
건국(독립)일	1948년 1월 4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국가 평화 발전 위원회(SPDC: State Peace Development Council) 중심의 과도기적 성격의 군사정부
국가 원수 (실권자)	○ 국가 원수: 탄쉐(Than Shwe) 장군(SPDC 의장 겸 국방부장관) - 취임일: 1992년 4월 23일(임기 제한 없음) - 탄쉐(Than Shwe) SPDC의장 겸 국방부장관이 최대 권력을 쥐고 있으며, 마웅에(Maung Aye) SPDC 부의장, 투라쉐만(Thura Shwe Mann) SPDC 멤버가 각각 2, 3인자로 알려져 있음. ○ 수상: 떼인 세인(Thein Sein) 장군 ○ 취임일: 2007년 10월 24일

자료: 미얀마 통계청

나. 경제 지표

GDP	US\$ 227억(2008년 추정치)
실질 경제 성장률	1.1%(2008년 추정치)
1인당 GDP	US\$ 434(2008년 추정치)
실업률	통계 없음.
물가 상승률	20.4%(2008년 추정치)
화폐단위	Myanmar Kyats(Kt)
환율	US\$1 = Kt 1,050 (2009년 9월기준)
외채	US\$ 79.5억(2008년 추정치)
외환 보유고	US\$ 34.1억(2008년 추정치)
산업구조	농업(38.4%), 공업(25.8%), 무역 및 서비스업(35.8%) (2005년)
교역 규모	○ 2007 년 추정치 - 수출: US\$61.7 억 - 수입: US\$29.6 억 - 무역흑자: US\$32.1 억 ○ 2008 년 추정치 - 수출: US\$67.0 억 - 수입: US\$34.3 억 - 무역흑자: US\$32.7 억
교역 품	○ 수출: 천연가스, 티크 및 목재, 콩류, 섬유류, 수산물 ○ 수입: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철강 및 금속제품, 섬유류, 전기 장비

자료: EIU Contry Report(2009. 9월호), 미얀마 중앙통계청

다. 한-미얀마 관계

체결 협정	무역협정('64 체결, '67 개정) 뉴스교환협정('72) 항공협정('78) 임업약정('99) 이중과세방지협정('02)
교역 규모	○ 2008 년 - 우리나라의 對 미얀마 수출: US\$ 2억 4,382만 - 수입: US\$ 1억1,625만 - 무역흑자: US\$ 1억 2,756만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직물, 산업 기계, 석유화학 제품,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 ○ 우리나라 수입: 광물성 연료, 섬유제품, 임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
투자 교류	○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 기준(2008년 12월 말 기준), 37건 US\$ 2억 3932만 ○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2008년 12월 말 기준), 118건 US\$ 2억 5441만, 투자금액 US\$ 9,675만
교민	총 교민 수 약 1,000명(2008년, 외교부 추정치)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미얀마는 국가 평화 발전 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를 중심으로 한 과도기적 군사 정부로 1988년 친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구성된 국가 법질서 회복 위원회(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 SLORC)가 1997년 해체되면서 새로이 개편한 조직이다. 초헌법적 기구인 SPDC 의장은 탄세 장군으로서 국가 원수와 국방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SPDC는 군부 최고 지도자들의 협의 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 SPDC 의장은 탄세 장군, 부의장은 마웅에 장군이 맡고 있다.

31개 정부 부처 장관은 대부분 현역 또는 퇴역 군 장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상(Prime Minister)은 떤인 세인 장군이 맡고 있으나, SPDC 의장, 부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떨어진다. SPDC는 14개 주(7개 Division, 7개 State)와 하부 단위인 군 단위, 부락 단위까지 구성되어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 주/지구 사법 위원회(고등법원), 군/구 사법 위원회(지방법원) 형식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SPDC가 임명한다. 2009년 9월 기준, SPDC 주요 인사 및 장관 현황은 아래와 같다.

SPDC 주요 인사 및 장관 현황

보직	성명	보직	성명
SPDC 의장	Than Shwe(원수)	재무부 장관	Hla Tun(소장)
SPDC 부의장	Maung Aye(부원수)	외무부 장관	Nyan Win(소장)
SPDC 제1서기장	Tin Aung Myint Oo(중장)	내무부 장관	Maung Oo(소장)
국무총리(수상)	Thein Sein(중장)	공업1부 장관	Aung Thaung
농업부 장관	Htay Oo(소장)	공업2부 장관	Soe Thein(해군중장)
상업부 장관	Tin Naing Thain(준장)	노동부 장관	Aung Kyi
국방부 장관	Than Shwe(원수)	광업부 장관	Ohn Myint(준장)
에너지부 장관	Lun Thi(준장)	정보통신부 장관	Thein Zaw(준장)

입법부는 1988년 친위 쿠데타로 해산한 이후 1990년 5월 의회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주국민연맹(NLD)이 압승했으나 군부에 의해 무효로 선언 되고 아웅산 수지 여사는 수차례 가택 연금과 해금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가택 연금 상태로 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바 있다.

2003년 미국의 미얀마 경제 제재조치 이후 발표된 민주주의로 가는 7단계 로드맵에 따라 신 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 회의(National Convention)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NLD가 참가를 거부하고 있고, 군부의 희망대로 국민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90년 5월 총선거 당시 233개의 정당이 등록된 바 있으나, 현재 실질적으로 활동 중인 정당은 NLD(야당)와 USDA(관변단체)가 있다. 그러나 NLD 역시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 연금 상태에 있고 SPDC의 조직적인 탄압에 의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08년 5월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에도 불구하고 헌법 초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강행하였고 약 92%의 찬성표를 얻었다는 발표를 했다. 이어 정부는 2010년 총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화, 마약, 인권 문제와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 연금 문제로 미국, 영국을 위시한 서방 세계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접국인 중국, 인도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 ASEAN 회원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1월 미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미얀마의 모든 정치범 석방과 민주 개혁, 소수 민족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미얀마와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결의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 연금 문제로 촉발된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2003년 7월 말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 제재 조치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미얀마 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히고, 미얀마 고위 인사의 미국 방문이 금지되었으며, 외국과의 달러 결제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2008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헌법 초안에 따라 2010년에는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선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미얀마 정치 체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헌법 초안에 따르면, 새로 구성될 국회의원 의석의 25%를 군인 출신이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총선을 통해 민정 이양이 되더라도 현 군부 체제의 주요 인사들이 그대로 정권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 체제의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군정에서 민정으로 변화하는 만큼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점진적인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미얀마는 한국과 1975년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견지해 왔지만 북한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 미얀마 공식 방문 시 북한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인해 한국 외교 사절 17명이 순국한 사건 이후 북한과 단교해 오다가 2007년 4월 26일부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였다. 2008년 기준 한국과 미얀마의 교역 규모는 약 3억 6,007만 달러로 이 중 수출은 2억 4382만, 수입은 1억1625만에 달한다. 미얀마 통계 기준 한국은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은 5대 수입국이다.

정치, 외교적으로 양국간 특별한 이슈는 없다.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ASEAN과 한국이 FTA 체결하였으나, 한-미얀마 교역 규모가 다른 ASEAN 회원국에 비해서 미미하고 미얀마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 상대가 이미 FTA를 체결한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이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

자원 확보 차원에서 큰 관심이 가는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대우 인터내셔널 주도로 미얀마 북서부 해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2000년 10월 광구 개발권을 획득했으며, 2003년 11월 A-1광구 쉘지역에서 2조 8,000억~3조 5,000억 입방피트의 가스 매장량을 확인한 바 있다. 상업 생산은 2010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 지분 10%를 포함, 한국이 70%, 인도가 30% 지분을 갖고 있다. 2008년 미얀마 정부는 대우에서 개발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05년 일부 단기 체류 한국 선교사들의 미얀마 내 불법 선교 활동으로 미얀마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인들의 미얀마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으나 구비 서류 제출시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다.

미얀마는 현재 한류 열풍의 한가운데 서있다. 2002년 말 방영된 TV드라마 '가을동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TV드라마 열풍이 거세다. 현재 미얀마 TV채널은 MRTV와 MWD 등 2개가 있으며, 이들 채널을 통해 매주 방영되는 한국 TV드라마는 4~5편에 이른다. 송승헌, 송혜교, 원빈, 장동건, 최지우, 배용준, 채림 등 한국 연예인의 인기는 최고 수준이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 또한 거세다. 한국에서 동남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속될지 말들이 많지만 미얀마의 한류 열풍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주요 경제 지표

구 분	2005(실질)	2006(실질)	2007(추정)	2008(추정)	2009(예상)
GDP (십억 달러)	11.2	11.8	16.3	22.7	26.8
실질GDP성장률(%)	13.6	3.4	3.4	1.1	1.0
소비자물가상승률(연말, %)	14.3	28.4	28.6	20.4	8.6
대출 이자(%)	15.0	17.0	17.0	17.0	17.0
예금 이자(%)	10.0	12.0	12.0	12.0	12.0
FOB 상품 수출(1억 달러)	37.9	45.6	61.7	67.0	61.7
FOB 상품 수입(1억 달러)	17.6	23.4	29.6	34.3	35.1
경상수지(백만 달러)	576	760	1,285	1,254	698
외환 보유고(백만 달러)	782	1,248	2,312	3,412	3,561
대외채무(십억 달러)	6.6	6.8	7.4	7.9	7.3
연평균 환율(짜트: 달러)	1,095	1,280	1,290	1,185	1,090

자료: EIU Contry Report(2009. 9월호)

나. 주요 경제 정책

1) 정책 기초

미얀마에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경제 정책이 없다. 미얀마 정부는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대신 임시 방편적인 정책을 취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기초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로 경제 침체와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미얀마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과거 대표적 임시 방편 정책은 2004년 상반기 취해진 쌀 수출 금지 조치로 당시 무섭게 치솟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했지만 농가 수입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한 바 있다. 2005년 10월에는 정부의 보조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보조 기름 가격을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8배 이상 인상한 바 있다. 이로써 휘발유는 180짜트에서 1,500짜트로, 경유는 160짜트에서 1,500짜트로 인상되었다. 2006년 4월, 행정 수도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무원 및 군인의 임금을 5~12배 인상하였으며, 이는 환율 불안 및 물가 상승 등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쳤다. 또한 2007년 8월 15일에 약 2~5배의 갑작스런 기름값 인상으로 민생고에 따른 반정부 시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미얀마 정부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2007년 특별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s)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2) 재정 정책

미얀마 정부의 재정 적자는 GDP의 4%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통한 정부 지출이 지속될 전망이다. 2008.4월에서 2009. 3월까지의 2008-09년 회계 연도에 따르면 4월~12월 동안 세입은 '07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6708억 짜트를 기록하였다. 이는 공식 환율로는 1245억 달러, 시장 환율로는 5억6천6백만 달러에 다다른 금액이다. 소득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83%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얀마 재무부가 법인세 미납 시 법인 등록 연장 불허, 탈세자 처벌 강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 탈세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차입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2008년 5월 사이클론 피해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2008-09년도 재정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미얀마 정부가 세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 또는 여권을 만들 때 문제가 된다면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방 부문의 과다 지출, 비효율적인 공기업 운영, 신수도(네피도) 건설 등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고 이 부문에 대한 예산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보건, 교육 부문의 정부 지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 통화 정책

미얀마 중앙은행은 재무 세입부(Ministry of Finance & Revenue) 산하에 있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은 없다.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명목 금리는 고정되어 있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상태이며 이러한 중앙은행의 비효율적인 통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4월 1일부로 미얀마 정부는 갑작스럽게 금리를 2%씩 인상하여 예금 이자율은 10%에서 12%, 대출 이자율은 15%에서 17%로 변경되었으나, 너무 미미하고 때늦은 조치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얀마 정부는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대한 차입을 늘렸는데, 이는 시중 통화량을 급격히 늘려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IMF에 따르면 2007년도 M2통화량은 지난해 대비 30% 증가하였다.

다. 국내 경제 동향

EIU에 따르면 2008년도 미얀마 실질 GDP성장률은 1.1%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2008년 5월 사이클론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주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여파로 미얀마의 주요 수출 시장이 경기침체를 겪음에 따라 미얀마 경제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경제성장률은 1.0%로 크게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부터 미얀마 경제도 3.1%의 성장률을 보이며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어려움을 겪었던 봉제업은 2005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07년 9월 시위 사태로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고 2009년 도에는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의복 수요가 감소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08-09년(4월부터 12월) 국영 기업의 생산 실적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다. 천연가스의 생산이 9.4%, 합판, 면사의 생산량이 각각 66%, 11% 감소하였고 면사와 시멘트의 생산량이 각각 10%, 14% 증가하는데 그쳐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FDI)도 전력, 석유가스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2008-09년도(4~12월 까지)의 외국인 투자는 4건, 9억6700백만 달러 증가하였으나 광업(1건), 석유 가스(3건)에 집중되었다. 2006년 4월 태국으로부터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60억 달러 규모의 수력 발전소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이후 실질 투자는 지연 되고 있다. 미얀마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 열악한 투자 환경,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 시민 단체의 미얀마 상품 보이콧 운동 등은 투자 진출의 장애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008년 5월 양곤 등 미얀마 남부를 강타한 사이클론, 2007년도 시위 사태 등은 투자자들에게 미얀마의 대외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비추고 있다.

라. 대외 거래 동향

최근 미얀마의 무역 수지는 천연가스의 수출 호조로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얀마 중앙 통계청에 따르면, 회계 연도 기준 2008-09년(2008년 4월에서 2009년 3월까지) 미얀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6% 증가한 6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36.4% 증가 한 4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천연가스, 티크 및 하드우드, 콩류, 의류, 수산물 등이며, 수입 품목은 기계 및 운송 장비, 정유, 비금속 제품, 전기기계, 직물 등이다.

천연가스의 수출이 전년 대비 5.9% 감소한 2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천연가스, 콩류, 티크 및 하드우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이 편중되어 있다.

수입의 경우 네피도(신수도)의 건설과 사이클론 피해복구, 전력, 에너지 부분의 외국인 투자로 인해 건설 중장비 및 운송 장비의 수입이 76%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정유의 수입은 58%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마. 경제 전망

IMF에 따르면, 미얀마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06년 3.4%, 2007년 3.4%, 2008년 1.1%로 추정된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적자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 증가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고, 국외적으로 금융 위기에 따른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미얀마의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의 하락으로 2008년도 연평균 물가 상승률은 27%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9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10~15%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 역시 광업, 석유 가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투자로 미얀마 경제를 크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바마 정권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 미얀마 정책의 변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고, 2010년 미얀마의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미얀마 국내외적으로 정치 체제가 안정되면서 이에 따른 경제 성장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석유·가스 부문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과 제조업 부문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농업은 국제 기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생산성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은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와 인권 단체의 미얀마 제품 보이콧 운동, 만성적인 전력 부족 때문에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수도인 네피도 지역으로의 행정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었으나 네피도 지역의 인프라 미비, 위생 설비 미비 등으로 수도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6월부터 양곤 시에서 수출입 허가 업무를 중단하는 등 행정 수도 이전에 따른 행정 업무 지연,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 부문의 과도한 지출과 더불어 신수도 건설을 위한 예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 교육, 인프라 등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과 경제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007년 8월 미얀마 정부의 유가 인상 조치로 승려 및 시민들의 시위가 촉발되었으며, 10월에 미얀마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 사태로 인한 정정 불안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이 시위 사태를 계기로 미얀마 국민들의 경제 문제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지 정부를 향해 표출될 수 있으며, 미얀마 정부도 보다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미얀마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였지만, 2008년 5월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의 피해 복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쌀 생산에 대한 피해 또한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투자 자본이 거의 없는 미얀마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주요 수출 시장인 태국, 중국, 싱가포르 등이 금융 위기로 침체를 맞으면서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미얀마는 지난 26년간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모든 산업 시설을 국유화하고 민간의 대외 무역을 금지해 왔다. 1988년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였으나 현재까지 규모가 큰 공장과 주요 산업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국영 기업 거의 대부분이 외화 부족에 따른 원료 수입 곤란, 노후 기계 교체 지연 및 수리 불량 등으로 가동률이 현격히 낮은 편이다.

현재 미얀마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력 산업은 농업, 광업, 임업 등 1차 산업이며, 특히 해상 천연가스전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자원 개발 분야가 전통적인 농수산업, 임업 등과 함께 미얀마 전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미얀마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산업별 GDP 비중은 농업이 38.4%, 공업(제조업 포함)이 25.8%, 무역/서비스업이 35.8%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농업의 GDP비중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제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가. 에너지, 광물 자원 산업

미얀마는 복잡한 지질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종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될 수 있는 조건이다. 두꺼운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대륙붕은 물론 중부 내륙지

방에도 원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동부 산악지대에는 함유셰일(Oil shale)이 발견되고 있다. 주라기 시대에 형성된 석탄이 동부 산악지대 및 북서부 내륙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각종 광물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내포한 페그마타이트(Pegmatites), 아라스카이트(alaskite) 등 광물질도 풍부하여 동남아의 자원 부국으로 불리고 있다.

지질학적으로 미얀마는 크게 6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각각 Arakan(Rakhine), Indo-Burman Ranges, Western Inner-Burman Tertiary Basin, Central Volcanic Belt, Eastern Inner-Burman Tertiary Basin, Sino-Burman Ranges 으로 구성된다.

대체로 Basins 지역에는 원유 및 천연가스가, Ranges 지역에는 각종 광물이 풍부하다. 특히 Sino-Burman Ranges에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루비, 사파이어, Jade 등 보석류가 매장되어 있으며 금, 다이아몬드, Zinc-tungsten이 매장되어 있다. 광종별로는 Lead(납)-zinc(아연)-copper(동)계열 광물, Tin(주석)-tungsten(텅스텐) 계열 광물, Gold-silver 계열 광물 채굴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4년 새로운 광산법이 제정되면서 외국 업체의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이 허용되었으나 아직도 생산과 수출은 미얀마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모니와(Monywa) 구리 광산은 미얀마 광업 1부와 캐나다 광물개발업체 아이반호사(Ivanhoe Mines Inc.)가 50:50 합작으로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루비, 제이드와 같은 보석류 역시 미얀마의 주요 외화소득원이다.

천연가스는 야다나(Yadana) 천연가스전, 예타건(Yetagon) 천연가스전 개발로 2001년부터 미얀마 최대 수출 품목으로 등장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외화소득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남부 해저에 위치한 야다나 천연가스전의 경우, Total(프랑스), Unocal(미국), PTT(태국) 등이, 예타건 천연가스전의 경우, Petronas(말레이시아), Premier(영국), Nippon Oil(일본), PTT(태국) 등이 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개발사업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이 인도 기업과 함께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 주 근처 A-1, A-3 해 상 광구에서 천연가스를 개발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60%, 10 %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30%는 인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갖고 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최근 AD-7광구에 대한 개발권도 획득한 바 있다.

미얀마 주요 자원 보유 현황

구 분	단 위	매 장 량	비 고(세계 비중 등)
원유	백만배럴	3,200	0.25%
천연가스	tcft	16	1.07%
철광석	십억톤	0.3	0.38%
석탄	십억톤	0.2	-
니켈	백만톤	40	Nickel ore 기준
동	백만톤	21	Copper ore 기준
아연	백만톤	14	Lead ore 기준
우라늄	-	N/A	부존확인

자료: 2005년 기준(추정), 광진공, UNDP, 에너지경제연구원, 양곤무역관총합

나. 농림수산업

농업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GDP비중 면에서, 외화가득원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의 농산물 총 재배(Gross Sown) 면적은 20,414천 헥타르에 달하며 순 재배(Net Sown)은 10,516천 헥타르로서 동일 토지를 여러 번 이용하는 다모작 (Multi-cropping)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미얀마는 다양한 기후 및 토지대를 자랑하며 그 결과 60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 즉, 남부의 광활한 델타지역, 약 1960Km에 달하는 해안선지역, 중부 건조 지역, 동서북 산악지역으로 구분된다. 곡물(Cereal) 경작 면적은 2004/2005년 전체 경작 면적(Sown area) 43,073천에이커 중 44%를 차지하는 17,431에이커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쌀은 미얀마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벼 경작 면적은 전체 경작 면적의 39%이다.

쌀은 미얀마인들의 주곡으로서 미얀마 정부에서는 쌀의 증산을 통한 국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쌀 생산은 재배 면적의 확대, 관개시설 확충을 통한 다모작, 종자 개량 및 기술 보급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난 바 있으며 1930년대에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차지한 바도 있다. 하지만 오랜 군사 독재 체제하의 비효율적인 경제 운용으로 생산성의 정체를 가져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출 여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미얀마는 한때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으나 인구 증가로 인한 국내 수요의 증가와 신규 농경지 확대 한계, 기술 수준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정체로 쌀의 수출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신 콩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쌀의 경우 주곡으로서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독점하고 있는데 비해, 콩 등 기타 곡물 및 농작물은 민간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 미얀마에서 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는 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넛, 생고무, 양파, 마늘 등이 있으며 최근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콩이다.

콩은 쌀과 더불어 미얀마의 주요 수출 농작물 중 하나이다. 1987년 이후 콩의 생산 및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순수한 농민들의 노력에 따른 결과이다. 미얀마는 약 17가지 종류의 콩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 Black gram, Green gram, Pigeon pea가 콩 수출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은 인도로, 인도는 1960년대 Green Revolution의 일환으로 농업의 중심을 쌀과 밀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콩 재배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인도 내수 시장에서 콩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콩은 쌀과는 달리 정부의 간섭이 거의 없이 농민들이 재배하여 자유로이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인센티브 요인이 되어 수출 확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

미얀마인들에게 있어 쌀 다음으로 중요한 농산물은 오일시드(Oilseed)로 낙화생유(Ground nut oil)과 참기름(Sesame oil)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낙화생유가 소비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참기름의 생산량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경 무역을 통하여 불법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량은 적은 편이다. 기타 미얀마에는 해바라기씨유(Sunflower oil)도 있으나 낙화생유와 참기름이 섞여 제조,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미얀마 농업 생산은 비료 및 우수 종자, 토지의 개간이 부족하며 열악한 저장 시설 및 운송 수단으로 인해 생산량이 캐파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품질 또한 낮아 수출 시 가격이 낮게 책정된다.

미얀마 주요 농산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2004-05년 기준, 쌀 2,867만 톤, 콩 2787만 톤, 참깨 55만 톤, 땅콩(Ground Nut) 186만 톤, 옥수수 77만 톤, 면화 38만 톤에 이른다.

미얀마 쌀 수출

회계연도	수출량(천 톤)	수출액(백만 짜트)
2003-04	168.5	130.4
2004-05	182.0	180.2
2005-06	180.0	214.0
2006-07	14.5	18.0
2007-08	358.5	552.6
2008-09(4~12월)	223.2	393.8

주1: 회계연도는 4.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임

주2: 짜트는 미얀마 현지화이며, US\$1 = 약 6짜트(공식환율)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미얀마는 전 국토의 약 52%가 산림 지역으로 산림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미얀마 산림부(Ministry of Forest)에 따르면 미얀마에는 약 8,570종의 식물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2,300여종의 수목과 850종의 난초류, 97종의 대나무류, 32종의 갈대류(cane)등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수종은 티크(Teak), 하드우드(Hardwood) 등이며 특히 미얀마는 전 세계 티크의 75%를 보유하고 있다. 산림 면적 중 티크의 면적은 약 610만 헥타르 정도 이고 10%는 조림 목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티크의 연간 생산 가능량은 약 30만 톤 정도이다.

티크와 하드우드로는 Padauk(*Pterocarpus macrocarpus*), Pyinkado(*Xylia dolabriformis*), Kanyin(*Dipterocarpus species*), Taungthayat(*Swintonia floribunda*), Pine(*Pinus insularis*) 등이 있으며 연간 벌목 가능량은 140만이며, 이중 약 80만 톤이 정부와 허가 받은 민간 기업에 의해 벌목된다. .

최근에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95%의 목재가 불법 벌목에 의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불법 벌목이 성행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벌목과 국경을 통한 목재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미얀마 산림의 빠르게 황폐화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산림 보호를 위해 보존 수림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미얀마 산림부에 따르면, 1988~1989년 보존 수림은 38,876평방 마일이었으나 2005~2006년 60,679평방 마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얀마 산림분포 현황(연도별)

(단위: Square Miles)

회계연도	국토면적	산림			기타
		소계	보존	비식별	
2001-2002	261,228	132,861	53,992	78,869	128,367
2002-2003	261,228	136,582	54,758	84,979	121,491
2003-2004	261,228	136,582	58,468	81,477	121,283
2004-2005	261,228	136,582	59,424	80,627	121,177
2005-2006	261,228	NA	60,679	NA	NA

주: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임.

자료: 미얀마 통계청

티크와 하드우드의 벌목 및 수출현황

(단위: Cubic ton)

회계연도	티크 벌목	티크 수출	하드우드 벌목	하드우드 수출
2001-02	276,067	200,500	1,135,821	285,600
2002-03	297,979	205,600	1,072,734	308,000
2003-04	362,039	281,100	1,126,862	390,800
2004-05	300,497	319,200	1,148,876	496,800
2005-06	307,060	333,100	1,177,000	636,700
2006-07	NA	347,400	NA	637,400
2007-08	NA	282,400	NA	791,800

주: 회계연도는 4. 1일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임.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국 (CSO)

1988년 이전까지 목재 산업은 국유화되어 있었으며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계기로 민간기업도 목재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얀마에서 목재의 수확, 가공 및 유통은 미얀마 산림부 산하 미얀마 목재청(Myanmar Timber Enterprise, 이하 MTE)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일부 임지에 대해 내국인에게 생산 및 구입 권한을 허용하고 있다.

보통 단판 및 고급제재용 원목은 원목 형태로 수출되거나 민간 합판 제조업자에게 판매되고 저급목은 MTE에서 운영하는 제재소에서 제재한다. 티크의 경우 원목 또는 제재목으로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으며 아피통(Apitong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는 크루인 Keruing)의 경우 고급합판재로 사용되기 위해 원목 상태로 또는 베니어(Veneer)나 합판으로 가공되어 인도, 중국, 일본 등지로 고가에 수출되고 있다.

2003년에는 목재업 종사자들의 협회인 Myanmar Forest Product and Timber Merchants' Association(MFPTMA)가 결성되었다. MFPTMA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미얀마에는 231개의 민간 목재 가공공장과 105개의 정부 가공공장이 있다. MTE의 통계에 따르면 미얀마의 전역에 제재소는 212개가 있고 중소규모의 목재관련 판매점을 포함한 업소는 3,404개로 목재관련 업체는 총 3,616개이며, 이 중 2,250개는 미얀마 공업1부에 등록되어 있다.

2005년 기준 양곤 시와 해안 지역에서 수산물을 냉동/냉장 형태로 생산하는 업체는 130개가 넘는다. 미얀마의 수산물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호주, UAE 등 약 40여 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업체는 약 150개 정도 있다. 수출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10%정도이며, 지난 10년 동안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새우 등 갑각류와 다양한 종류의 생선이다. 특히 새우는 그 품질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산물 수출 상위 10개 품목(2004~2005)

순번	품목명	수출량(Ton)	수출액(US\$ Million)
1	Sea Water Shrimp	21,798.7	100.8
2	White Pomfret	6,727.8	19.6
3	Hilsa	13,016.5	19.1
4	Rosy Jew Fish	9,393.2	13.1
5	Ribbon Fish	15,618.6	12.6
6	Yellow Croaker	5,613.9	7.8
7	Long Tongue Sole	4,414.5	4.4
8	Sea Water Fish	5,571.4	4.2
9	Cuttle Fish	2,247.8	3.4
10	Sea Eel	3,540.3	3.3

자료: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Department of Fisheries

미얀마 정부는 수산물을 크게 민물 어류, 바다어류로 분류하고 민물어류는 Culture Fishery (양식에 의해 생산된 수산물), Leasable Fishery(양식 이외의 허가된 조업), Open Fishery (양식 이외의 무허가 조업) 3가지로 나뉜다.

연도별 수산물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회계연도	총계	Culture Fishery	Leasable Fishery	Open Fishery	Marine Fishery
2001-02	1474.46	190.12	95.95	158.93	1029.46
2002-03	1595.87	252.01	109.53	180.61	1053.72
2003-04	1986.96	400.36	122.28	331.98	1132.34
2004-05	2217.47	485.22	136.79	366.75	1228.71
2005-06	2562.36	563.14	151.85	478.43	1368.94

자료: Department of Fisheries, Ministry of Livestock and Fisheries

다. 전력 산업

미얀마의 전력 수요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전력 설비의 부족과 계통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전기를 공급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전력 부문의 개발이 미얀마 정부 내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업이 되었다.

미얀마는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남부 안다만(Andaman)해까지 남북을 가로 지르는 에야워디 강(Ayeyarwady, 예전엔 Irrawady)과 그 지류인 친드윈(Chindwin)강, 그 외에도 땀윈(Thanlwin)강, 시타웅(Sittaung)강 등 총 길이가 5,600km에 이르며 연간 평균 강수량이 2500mm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도 이런 수자원을 바탕으로 수력발전을 통한 전력 자급자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얀마 정부는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전력 산업 발전 6단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미얀마 전체 발전 용량은 회계연도 2007~2008년 기준 1,690MW이다.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2004년 이후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새로운 수력 발전소가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발전 용량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형태별로는 수력발전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스 발전이 33%, 디젤발전 4%, 기타 화력발전이 19%를 차지하고 있다.

미얀마 발전형태별 발전용량

(단위: MW)

Year	Thermal	Diesel	Hydro	Gas	Total
2002-2003	216	59	391	523	1,189
2003-2004	336	61	391	523	1,311
2004-2005	195	60	746	561	1,562
2005-2006	315	68	746	561	1,690
2006-2007	315	68	746	561	1,690
2007-2008	315	68	746	561	1,690

주: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임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

미얀마 전력 생산량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회계연도 기준 2007~08년의 총 전력 생산량은 6,603백만kWh이며 10년 전에 비해 약 1.5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5~06년 이전까지 가스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2005~06년부터 수력발전이 가스 발전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디젤과 기타 화력발전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연료(석유) 부족, 외환 사정 악화로 인한 연료 수입 지체 때문이다. 향후 상당 기간 수력 또는 가스 발전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설비별 발전용량

(단위: 백만 KWH)

Fiscal Year	Thermal	Diesel	Hydel	Gas	Total
2002-2003	641.48	28.50	2,111.02	2,286.95	5,067.95
2003-2004	634.31	31.45	2,074.81	2,685.31	5,425.88
2004-2005	404.72	33.23	2,407.75	2,762.54	5,608.24
2005-2006	631.91	33.37	3,000.80	2,398.08	6,064.16
2006-2007	786.42	28.08	3,324.63	2,025.02	6,164.15
2007-2008	1,067.91	32.92	3,619.15	1,883.91	6,603.93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

미얀마에서는 고온 건기인 여름철에 수량이 바닥상태에 이르러 수력 발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가 전력난, 특히 여름철의 전력난을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Tigyt 화력 발전소는 미얀마 최대 화력 발전소로 산주(State) 남부 깔로(Kalaw)에서 약 22마일 남쪽에 위치하며 12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한 전력은 2개의 132킬로와트 전력선을 통해 깔로에 있는 국가 전력망(National Grid)에 공급된다. 석탄을 전력원으로 사용하는 Tigyt 화력발전소는 중국 China National Heavy Machinery Corporation이 건설했으며 4,293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아울러 발전소 관계자 및 인부용 숙소와 진입도로 등은 CHINA NATIONAL HEAVY MACHINERY CORPORATION과 미얀마 기업 ADEN GROUP OF COMPANIES가 시공했다.

용수는 발전소에서 서쪽으로 3마일 떨어져 있는 로피타(Lawpita)지류 저수지에서 파이프를 통해 공급하며, 석탄은 발전소에서 약 1마일 남쪽에 위치한 노천 탄광에서 조달한다. Shan Yoma Nagar사가 운영하고 있는 노천탄광은 30년 동안 발전소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석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1,750톤의 석탄을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라. 제조업

미얀마 제조업은 농림 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대부분이며, 식음료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냉장설비 투자 증가는 수산물을 주요한 외화가득원으로 만들었고, 정제 공장 투자증가는 정제 설탕생산을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아울러 미얀마는 합판, 베니어, 가구 등 임업관련 제조업 또한 국내사용 및 수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해 왔다.

농림 수산업에 기반을 둔 제조업 이외에 최대 제조업 분야는 수출을 전제로 한 봉제 분야이다. 봉제 분야는 제조업 중 외국인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다. 그러나 2003년 7월 미국의 미얀마 제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약 300개 봉제공장에서 35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던 봉제산업이 극한 침체 상태를 맞은 바 있다.

그 후 미얀마 봉제 산업은 미국 대신 유럽, 일본 등을 대체 시장으로 발굴하면서 2003년, 2004년 극도의 침체기를 극복하고 2005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오더량 기준으로 미국 경제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봉제산업의 호조로 원부자재인 면사, 직물의 제조업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얀마 봉제업자협회에 따르면, 2007

년 4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간 봉제 수출량은 '06년도 전체 수출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럽과 일본의 오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원인이다.

봉제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소규모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업 분야는 원가 부담 증가와 자금조달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얀마 제조업은 열악한 인프라, 인권문제를 이유로 일반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혜택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1998년 초부터 시작된 수입제한 조치가 2000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됨으로써 주요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전력 사정으로 인해 발전기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경유 구입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안고 있다. 또한 중국, 태국, 인도 등 인접국과의 국경 무역을 통한 저가 제품 이홍수를 이루고 있어 국내 제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8년 5월에 미얀마를 강타한 사이클론으로 인해 양곤에 소재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많은 업체들이 피해 복구와 전력을 자체 발전기에 크게 의존하는 등 공장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단기 자금난을 호소하는 업체들이 늘어 나고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한-아세안 FTA

2007년 6월 1일부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아세안 양측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수입액, 품목수 기준)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일반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민감품목)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되며, 나머지 3%(초민감품목)은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 수입 물량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아세안의 회원국인 미얀마도 동 협정에 따라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갈 예정이나 아세안 회원국 중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의 경우 양허안의 이행시기는 다소 연장된다. 미얀마의 경우, 일반품목은 2018년 관세를 철폐하고, 민감품목은 2024년 까지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된다.

일반 품목군 관세인하 스케줄

Applied MFN Tariff Rate X	ASEAN-Korea FTA Preferential Tariff Rate(Not later than 1 January)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 > or = 60	60	50	40	30	20	10	0
45 % <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5%	35	30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7% < X < 10%	7.5*	7.5*	7.5*	7.5*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Standstill						0

미얀마의 관세율 분포를 보면, 전체 5,472개 품목의 관세는 대부분 0~5% 수준이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율이 35%인 품목이 2007년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관세가 35~45%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대부분 자동차 관련 품목으로 민감 품목인 경우가 많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 외에 0~200%에 이르는 상업세(Commercial Tax)를 부과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관세는 낮은 편이나 상업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한-미얀마 간 무역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2007년 11월에는 한-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비스무역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비스 무역 협정은 서비스 무역 협정 본문, 서비스 양허안 등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세안 대부분의 국가가 컴퓨터, 통신, 해운, 건설, 금융 등 우리 기업의 주요 진출 관심 분야를 포함한 다수 분야를 추가 개방하여 GATS보다 월등히 높은 자유화 수준을 확보하였다.

미얀마는 회계·감사, 엔지니어링, 광고, 출판인쇄, 통번역, 영화제작 및 상영, 토목건설, 금융(손해사정·보험계리, 대표사무소), 통신(전자 및 음성 메일, 전자데이터교환, 텔렉스), 해운(여객 및 화물 운송), 운송(화물처리 및 창고), 항공(유지보수, 판매 및 마케팅, 컴퓨터 예약) 등의 분야를 개방하기로 하였다.

미얀마는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도 후발 개도국으로 서비스 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광범위한 분야를 개방하였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연구하여 선별적으로 진출하는 장기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나. 중-아세안 FTA

중-아세안 FTA는 2005년 7월 발효되었으며, 일반 품목에 대해 아세안 6개국은 2010년까지 미얀마를 포함한 나머지 4개국(CLMV)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CLMV 4개국의 일반품목군(Normal Track)의 관세인하 철폐 계획은 아래와 같다.

2003년 7월 실행관세율	특혜관세율 (매년 1월1일 기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X \geq 60\%$	60	50	40	30	25	15	10	0
$45\% \leq X < 60\%$	40	35	35	30	25	15	10	0
$35\% \leq X < 45\%$	35	35	30	30	20	15	5	0
$30\% \leq X < 35\%$	30	25	25	20	20	10	5	0
$25\% \leq X < 30\%$	25	25	25	20	20	10	5	0
$20\% \leq X < 25\%$	20	20	15	15	15	10	0-5	0
$15\% \leq X < 20\%$	15	15	15	15	15	5	0-5	0
$10\% \leq X < 15\%$	10	10	10	10	8	5	0-5	0
$7\% \leq X < 10\%$	7	7	7	7	7	5	0-5	0
$5\% \leq X < 7\%$	5	5	5	5	5	5	0-5	0
$X < 5\%$	현 관세율 유지							0

중-ASEAN FTA에서는 양 지역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품목에 비해 관세인하기간을 5~10년까지 연장하되 고민감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감도가 큰

품목으로 최대 400(중국+ASEAN6)~500개 품목(CLMV)은 2018년(중국+ASEAN6), 2020년(CLMV)까지 0~5%로 인하할 예정이다.

중국과 ASEAN 10국은 각각 관세철폐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Normal Track으로 민감도가 덜한 품목은 중국과 선진 6개국은 2010년까지,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되 다음과 같이 관세의 조기 철폐를 도모하고 있다. 단, ASEAN 후발 4개국(CLMV)에 대해서는 다소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였다.

중국+ASEAN6국은 2005년 7월 1일부터 대상품목 중 최소 40%이상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5%까지 감축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대상품목을 60%까지 확대 후 2010년까지 0%로 감축할 계획이며 CLMV의 경우, 2009년 1월 1일(베트남), 2010년 1월 1일(라오스, 미얀마), 2012년 1월 1일(캄보디아)부터 대상품목 중 최소 50%이상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0~5%까지 감축하여 2015까지 0%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얀마의 경우 대상품목의 40%는 2013년까지 0%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최근 미얀마의 무역 수지는 천연가스의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얀마 중앙 통계청에 따르면, 회계 연도 기준 2008-09년(2008년 4월에서 2009년 3월까지) 미얀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6% 증가한 6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36.4% 증가한 4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천연가스, 티크 및 하드우드, 콩류, 의류, 수산물 등이며, 수입 품목은 기계 및 운송 장비, 정유, 비금속 제품, 전기기계, 직물 등이다.

천연가스의 수출이 전년 대비 5.9% 감소한 23.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천연가스, 콩류, 티크 및 하드우드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이 편중되어 있다.

수입의 경우 네피도(신수도)의 건설과 사이클론 피해복구, 전력, 에너지 부분의 외국인 투자로 인해 건설 중장비 및 운송 장비의 수입이 76% 증가한 13.3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정유의 수입은 58%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미얀마의 교역은 해상으로는 싱가포르, 육상으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중국, 인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태국, 인도, 중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싱가포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이다.

□ 수출입 총괄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5(실질)	2006(실질)	2007(추정)	2008(추정)	2009(예상)
FOB 상품 수출	37.9	45.6	61.7	67.0	61.7
FOB 상품 수입	17.6	23.4	29.6	34.3	35.1
무역수지	10.3	22.2	32.1	32.7	26.6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9. 9월호)

□ 국가별 수출입

미얀마 10대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Country	2006~2007	2007~2008	2008~2009
1	Thailand	2,354.1	2,821.7	2,630.8
2	Singapore	182.3	401.6	850.9
3	India	733.6	728.0	805.0
4	Hong Kong	403.0	649.2	662.4
5	China	614.1	696.4	615.0
6	Malaysia	88.3	118.6	314.8
7	Japan	165.7	185.6	184.5
8	Republic of Korea	61.5	73.7	63.7
9	Germany	74.8	66.5	53.9
10	United Kingdom	50.6	57.5	52.2
	Others	495.0	614.5	559.7
Total		5,222.9	6,413.3	6,792.8

주: 회계 연도 기준(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미얀마 10대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Country	2006~2007	2007~2008	2008~2009
1	China	728.1	994.3	1,206.8
2	Singapore	1,031.2	815.8	1,048.0
3	Thailand	304.3	383.5	394.6
4	Malaysia	110.4	115.5	361.8
5	Indonesia	93.9	207.1	209.0
6	Republic of Korea	84.7	107.3	188.5
7	Japan	155.9	242.6	166.6
8	India	159.4	173.5	146.2
9	United States	43.2	22.1	82.6
10	Germany	30.5	30.2	47.8
	Others	186.9	254.7	711.3
Total		2928.4	3,346.6	4,563.2

주: 회계 연도 기준(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 (C.S.O)

□ 품목별 수출입

미얀마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Commodity	2007~2008	2008~2009
1	Gas	2,532.5	2,384.1
2	Garment	282.5	292.4
3	Matpe (Black gram)	274.7	262.3
4	Pesingon (Pigeon pea)	137.0	244.1
5	Teak	279.8	210.3
6	Rice	100.4	204.0
7	Hardwood	258.7	195.5
8	Fish and fish products	192.5	178.4
9	Pedesein (Green gram)	109.9	141.5
10	Fresh and dried prawns	101.1	86.6
	Others	2,144.3	2,593.7
Total		6,413.3	6,792.8

주: 회계 연도 기준(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 (C.S.O)

미얀마 10대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Commodity	2007-08	2008-09
1	Machinery non-electric and transport equipment	756.2	1,328.2
2	Refined mineral oil	369.6	585.6
3	Base metals and manufactures	219.2	333.6
4	Edible vegetable oil and other hydrogenated oils	192.2	295.4
5	Electrical machinery and apparatus	156.5	174.0
6	Plastic	155.7	166.7
7	Fabric of Artificial and synthetics fabric	212.3	150.0
8	Pharmaceutical products	115.5	124.6
9	Paper, paperboard and manufactures	53.1	71.9
10	Rubber manufactures	52.2	47.4
	Others	1,064.2	1,285.9
Total		3,346.6	4,563.2

주: 회계연도 기준(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 (C.S.O)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우리나라의 2009년 1~7월 미얀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9% 증가한 2억3,475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철강, 산업기계, 직물,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 제품 등의 전반적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해 싸이클론에 따른 피해와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 미얀마 수출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 품목이 미얀마 산업에 필수적인 중간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 69%감소한 2,267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산물 등의 수입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입수요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02년 이후, 드라마로 촉발된 한류 열풍이 한국 상품의 인지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국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수입)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품질 보다는 가격을 우선시하는 시장 특성에 까닭이 있다.

미얀마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언더밸류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 미얀마로 수출 시 싱가포르나 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미얀마 간 교역량을 통계로 나타내는 숫자로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 수출입 총괄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1~7월)
수 출	120.0	121.3	292.0	243.8	234.7
수 입	56.3	96.4	80.7	116.3	27.7
무역수지	63.7	24.9	211.3	127.5	207.0

자료: KOTIS

한국의 대 미얀마 주요 수출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		2009(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43,815	-16.5	234,745	149.1
1	61	철강제품	88,845	-38.9	132,792	1,120.30
2	72	산업기계	28,731	9.7	15,348	45.7
3	43	직물	16,306	-6.7	14,615	44.5
4	21	석유화학제품	16,255	131.5	13,607	201.4
5	31	플라스틱제품	14,797	19.6	10,164	-4.6
6	22	정밀화학제품	9,200	27.3	9,692	128.2
7	44	섬유제품	15,586	45.4	9,046	-8.1
8	33	가죽및모피제품	11,290	28.3	7,361	15.4
9	51	신변잡화	4,932	39.4	4,316	66.4
10	74	수송기계	3,672	2.2	2,668	14.4

주: MTI 2단위로 품목분류

자료: KOTIS

한국의 대 미얀마 주요 수입 품목

(단위: 천 달러,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08		2009(1~7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16,254	44.1	22,670	-69.3
1	44	섬유제품	30,436	0.6	15,546	18.6
2	1	농산물	7,787	28.8	4,567	13.5
3	3	임산물	5,416	-53.2	4,272	25.2
4	4	수산물	4,095	14.8	1,388	-30.3
5	51	신변잡화	957	56	1,159	107.5
6	59	기타생활용품	297	4.2	265	51.3
7	57	공예품	52	-25.2	115	119.8
8	74	수송기계	185	-12.1	102	-15.9
9	83	전자부품	0	-	51	-
10	11	금속광물	0	-	48	-

자료: KOTIS

3. 수입규제제도

미얀마 정부는 고질적인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격한 수입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건별로 수입 승인(Import License)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Posi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수입자가 외환 구좌에 수입 대금 100%를 선예치시킨 상태에서 외환 잔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정부에 수입 허가(I/L)를 신청하며, 정부는 이를 건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떨어지자 신용장을 개설,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 허가서 신청부터 신용장 개설까지 수입 대금이 은행에 묶이기 때문에 수입 억제 효과가 있다.

아울러 미얀마에서는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수입 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 수입상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미얀마 대부분의 업체가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이 수출 대금(Export Money) 한도 내에서 수입 활동을 한다. 수출 실적이 없는 수입 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수출 대금을 구입해야 하며, 수출 대금 구입에 적용되는 환율은 환소 가치를 반영, 시중 환율보다 10~15% 높게 거래된다.

수출 역시 건별로 수출 승인을 받은 후에야 수출이 가능하다. 즉 미얀마에서는 모든 수출입 활동이 정부에 의해 철저히 간섭을 받고 있다. 조미료, 음료수, 과자류, 통조림, 술, 라면, 담배 등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수입 금지 품목이 시장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수입 허가를 중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영 기업인 UMEHL을 제외한 일반 업체의 자동차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품목별로 정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다. 산 동물은 미얀마 농축 수산부, 무기는 미얀마 경찰청, 의약품은 미얀마 식약청, 식물, 종자류는 미얀마 농업 서비스(Myanmar Agricultural Service), 핸드폰을 포함한 통신 장비는 통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미얀마는 수입 허가서 발급 여부를 가지고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반덤핑 관세, 세이프 가드 등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별도 수입 규제는 없다.

5. 관세제도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와 상업세가 있다. 관세율은 미얀마 관세청에서 발간한 관세율표(Customs Tariff of Myanmar)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HS코드에 따라 MFN 관세율이 나와 있다. 미얀마는 NTR, GSP 등의 관세율은 없다. 수입 관세는 보속류, 귀금속 등의 사치품을 제외하면 5%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나 상업세는 10~30%로 수입 관세보다 비중이 높다. 상업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 수입 품목에 대해서 수입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며, 미얀마 정부는 1990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들의 원활한 수입과 무역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상업세를 기존 세율의 1/10 수준으로 줄였으나, 2004년 6월 15일부로 의약품, 컴퓨터, 비료, 살충제, 석유제품 등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10배 인상하여 원상 복구된 바 있다.

2006년 3월 24일부로 상업세법을 개정하여 국경 무역에 한해 상업세의 기준이 되는 수입 대금이 외화인 경우, 달러로 상업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공인 환전 환율(1달러=450짜트)을 적용하여 현지화로 징수하였으나 바뀐 세법에 따라 거래 대금이 외화인 경우 달러로 징수한다. 적용 환율이 공인 환전 환율에서 시장 환율(1달러=약 1,120짜트)로 바뀔에 따라 공인 환전 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만큼 상업세가 실질적으로 인상되었다. 이 조치는 국경 무역을 L/C를 통한 정상 무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정부는 국경 무역 지대에서의 일반 무역에 대해서 1달러=850짜트의 환율에 적용하고 있다. 기타 일반 무역에 대해서는 1달러= 450짜트의 환율이 적용된다.

조만간 미얀마 정부는 일반 무역에 대해서도 시장 환율을 적용할 예정이나 물가 급상승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시행 시기를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가. 미얀마 관세청에서 발간한 관세율표 목차

- Preface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 Notes on Terminologies used throughout the Harmonized System
- Administrative Guidelines
- List of Section and Chapter Title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Chapters 1-97) (Schedule I)
- Special Classification Provisions (Chapter 98)
- Concessionary Tariff Provisions (Schedule II)

한편,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ASEAN 회원국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추는 중이다.

6. 주요인증제도

미얀마에는 UL, CE 마크와 같은 정부 및 유관 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검사 제도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품목별로 정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도 있다. 산 동물은 미얀마 농축수산부, 무기는 미얀마 경찰청, 의약품은 미얀마 식약청, 식물, 종자류는 미얀마 농업 서비스(Myanmar Agricultural Service), 핸드폰을 포함한 통신 장비는 통신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7. 지적재산권

미얀마의 지적재산권 보호 실정은 매우 열악하다. 미얀마는 Patent & Trademark Law를 갖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는 없으며, 미얀마 농업부 산하 Settlement & Land Record Department의 Patent & Trademark Registration Office에 상표권을 등록한다.

수많은 해적판 CD, 비디오테이프, 서적 등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외국 유명 상표를 도용한 상품 또한 수없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의 단속 의지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는 미얀마를 포함한 최빈국의 TRIPS 조항 준수 여부를 당초보다 7년 6개월 연장된 2013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미얀마 정부가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미얀마 통관 절차를 미얀마 관세청 부서별 업무 흐름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류 준비 및 제출

- 세관 신고 서류(Customs Declaration Form 1: CUSDEC-1)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Original Seller's Invoice, B/L, Import License, Packing List, Sale Contract 등

2) 중앙등록사무소(Central Registry), 서류 검토

- 필요 서류 구비 여부 및 CUSDEC-1 세관 신고 서류 기재 데이터 정확성 여부 검토
-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일련번호, 날짜, 시간 등을 기재한 후, 영수증(Acknowledgement Receipt) 발급

3) 수입과(Import Section), 서류 검토

- 세관 신고 서류와 송장 등 관련 서류 비교 검토

4) 감정(평가)과(Appraising Group), 수입 품목의 수입 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

- 수입 품목이 수입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맞게 수입되었는지 검토
- 품목명세, HS코드, 관세율, 수량, 크기 등 세부항목 검토 후, Valuation Unit으로 서류 전달(올바른 품목 분류 및 정확한 관세 납부액 산정 목적)

5) 가치산정과(Valuation Unit), 수입 신고 가격과 기존 수입 가격 비교

- 과거 동종 품목의 수입 가격, 카탈로그, 필요 시 도매 시장 가격 등을 참고로 상품 가치 산정
- 수입 기록 없는 신 품목의 경우, 가치 산정에 애로. 경우에 따라 수입업자와 협상 가능
- 가치 산정 후, Appraising Group으로 세관 신고 서류 전달

6) 현금수납과(Cash Section), 관세 및 세금 결정액 부과

- Valuation Unit에서 산정한 상품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 및 세금 결정액 부과 및 징수

7) 현장 감정(평가)과(Wharf/Warehouse/Container Terminal/Airport Appraising Group),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수입 품목 비교 검사

- 세관 신고 서류(CUSDEC-1) 및 관련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수입 품목 비교 검사

- 검사 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과 수입 품목이 다를 경우, 압류, 관세 재계산, 환불, 추가 징수 등의 조치 시행

나. 운송

1) 무역항

미얀마의 해상 무역은 양곤에서만 이루어진다. 양곤에는 필라와, 아시아월드, 보타타운 등 3곳의 포트가 있으며 필라와, 아시아월드는 민간이, 보타타운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1996년 11월 오픈한 필라와 포트의 정식 명칭은 Myanmar International Terminal Thilawa로 줄여서 MITT라고 부른다. 양곤 다운타운에서 25Km 떨어져 있으며, 차로 40분 정도 소요된다.

양곤강에 위치한 아시아월드포트(Asia World Port Terminal: AWPT)는 양곤 다운타운에서 차로 15분, 양곤 공항에서 40분 소요된다. 미얀마 업체 Asia World 자회사인 Asia World Port Management가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 5월에 오픈했다.

보타타운 포트의 풀네임은 Botahtaung Street Wharf(Myanmar Port Authority)로써 미얀마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로 1987년 오픈했다. 양곤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미얀마 항만청(Myanmar Port Authority)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고 있다.

- Myanmar International Terminal Thilawa (MITT)
 - Add : Berth 5-9 Thilawa , Kyauktan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 (95-56) 25245 ~ 52
 - Fax : (95-1) 244446
 - E-mail : mitt@mptmail.net.mm
- Asia World Port Terminal (AWPT)
 - Address : Strand Road, Ahlone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 (95-1) 210601, 210747, 211561
 - Fax : (95-1) 210598
 - E-mail : awpm@mptmail.net.mm
- Botahtaung Street Wharf (Myanmar Port Authority)
 - Add: Myanmar Port Authority, Shipping Agency Department, 83-91, Bo Aung Kyaw St, Yangon , Myanmar
 - Tel : (95-1) 375443
 - Fax : (95-1) 256912
 - E-mail : mpa-sad@mptmail.net.mm

2) 공항

미얀마의 관문은 양곤 국제공항(Yagon International Airport)이다. 양곤 시내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다. 2007년 5월, 시간당 1,800명, 연간 270만 명의 통과 승객 처리 능력을 갖춘 신공항 청사가 개장되었다. 구공항 청사는 국내선 청사로 이용되고 있다. 태국 방콕, 치앙마이, 싱가포르, 콰라룸푸르, 홍콩, 대만 타이페이, 인도 콜카타(캘커타), 카타르 도하 등에서 직항이 운항되고 있다.

취항 항공사 리스트

항공사	주소	전화/팩스	목적지
Bangkok Airways (PG)	#0305, 3 rd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255122,255265 Fax:255199	Bangkok
Malaysia Airlines (MH)	335/357, Bo Gyoke Aung San Road, Pabedan Township, Yangon	Tel:241007(Ext:703~6) Fax:241124	Kuala Lumpur
Mandarin Airlines (AE)	353/355, Bo Aung Kyaw Road, Kyau ktada Township, Yangon	Tel:245484,240399 Fax:246330	Taipei
Myanmar Airways International(8M)	#0802, 8 th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255440,252260 Fax:255434	Malaysia Singapore Bangkok
Silk Air (MI)	#0202, 2 nd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255287,255288 Fax:255290	Singapore
Thai Airways International (TG)	#1101,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255499 Fax:255490	Bangkok
Air Mandalay(6T)	#146, Dhamazedi Road, Bahan Town ship, Yangon.	Tel:501520, 525488 (HeadOffice), 720309, 652753,652754 (Airport) Fax: 525937	Chiang Mai
Indian Airlines Limited (IC)	#127, Sule Pagoda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 253598 Fax: 248175	Calcutta
Air Bagan(W9)	#56, Shwe Taung Kyar St., Bahan T/S, Yangon.	Tel: 514861, 504888 Fax: 538283	Bangkok
Air China(CA)	#13, 23 B, Nar Nat Taw St., Shwe Kainnayi Housing Kamayut T/S, Yangon.	Tel: 500952, 500024 Fax : 505023	Kunming
Thai Air Asia(FD)	#33, G-Floor, Park Royal Hotel, Alan Pya Phaya Pagoda Road, Dagon Town ship, Yangon.	Tel: 251885~6 Fax: 251882	Bangkok

3) 운송 및 통관 서비스 회사

- New Golden Lion Enterprise
 - Add: No (58), 1st Fl, Mahabandoola Garden St, Kyauktada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 (95-1) 253589, 376319 / Fax : (95-1) 253589
- N.M.T
 - Add : No 477, 1st Fl, Merchant St, Botahtaung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 (95-1) 295387, 706735 / Fax : (95-1) 256866
 - E-mail : nmt@mptmail.net.mm
- Myanmar Custom Clearing Agents Association
 - Add : 105, 1st Flr, 38th Street, Kyauktada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 (95-1) 391352 / Fax : (95-1) 391352 (Call First)

4) 운송 비용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필라와, 아시아월드, 보타타운 등 3곳의 포트에서 양곤 주요 지역까지의 운송비는 다음과 같다.

(단위: 짜트)

Sr.No	Destination	BSW	AWP-MIP	TLW
1	Hlaing Tharyar	80,500	80,500	145,500
2	Bayint Naung	66,000	66,000	106,500
3	Shwe Pyi Thar	78,500	78,500	144,500
4	Ahlone	48,500	48,500	98,000
5	Kamayut	66,000	66,000	106,500
6	Insein	72,500	72,500	127,000
7	Paohkan	78,000	78,000	142,500
8	Wartan	42,500	48,500	85,000
9	Bothtaung	42,500	48,500	83,500
10	Satsan	51,500	56,500	83,500
11	Tamway	66,000	70,500	84,500
12	Thuwunna	66,000	70,500	84,500
13	Thakayta	65,500	70,500	83,500
14	Bahan	66,000	66,000	84,500
15	Thamine	66,000	66,000	106,500
16	Kyaikwine	66,000	66,000	107,000
17	Sawbwargyigone	74,500	74,500	129,500
18	Pale	87,500	87,500	143,500
19	Mingalardon	87,500	87,500	143,500
20	Pyinmabin	87,500	87,500	143,500
21	S/Okkalapa	66,000	70,500	104,500
22	Thingangyun	66,000	70,500	104,500
23	N/Okkalapa	74,000	79,000	115,000
24	S/Dagon	69,000	74,000	83,000
25	N/Dagon	75,000	80,000	114,500
26	Shwepaukkan	78,500	83,000	142,500
27	Nwekway/Htaukkyant	120,000	120,000	178,000
28	Hmawbi	139,000	139,000	208,000

주 1: BSW는 Botahtaung Street Warf, AWP-MIP은 Asia World Port/Myanmar Industrial Port, TLW은 Myanmar International Terminal Thilawa (MITT)를 뜻함.

주 2: 짜트는 미얀마 현지화이며, US\$1 = 1,120짜트(2008년 9월 기준) 수준임.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이점

1)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미래 잠재 시장

미얀마는 한반도의 약 3.5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과 구리, 아연, 주석, 텅스텐, 니켈 등 광물 자원,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류, 티크 등 산림 자원 등이 풍부하다. 천연 가스 매장량은 17조 입방 피트, 원유 매장량은 32억 배럴로 추정된다.

국가의 통제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근 자유, 자본주의 풍토 확산으로 특히 젊은 세대의 탈 전통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부에 대한 열망 및 상업 활동이 증대되고 있다. 위성 방송 및 외국 드라마 시청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의식이 급속도로 개방화되면서 전통 의상 착용이 감소하고 있고 최근 수년간 서구 모방적인 다양한 문화 활동과 상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2년 가을동화 방영을 계기로 지금까지 매주 2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가 미얀마 안방에 방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한국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거대 소비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

미얀마는 거대 소비 시장인 중국,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중국, 인도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활용도가 높다. 동·서남아를 잇는 물류 기지로서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얀마 자체 인구가 2007년 기준 약 5,7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동남아 최대 잠재 시장 중 하나이다.

3) 저임 양질의 노동력 보유, 노동 집약적 산업의 투자지로 적격

미얀마의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US\$ 30정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노동 생산성은 임금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현지 봉제업체에 따르면, 미얀마의 임금 수준은 베트남의 절반 수준인데 반해 노동 생산성은 베트남의 80% 수준으로 임금 대비 노동 생산성은 베트남의 1.6배에 이른다.

4) 막대한 개발 잠재력, 최적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가능

막대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본력의 취약으로 미얀마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우 대 미얀마 경제 제재로 인해 서방 기업의 대 미얀마 투자가 사실상 어려워 미얀마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근 아세안 그리고 미얀마 최대의 우방인 중국보다는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미얀마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그간의 경제 개발 경험과 기술, 해외 투자 자본 측면에서 미얀마와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향후 미얀마의 민주화 및 대외 개방을 대비한 시장 및 자원 선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2002년 가을동화 방영을 계기로 지금까지 매주 2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가 미얀마 안방에 방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어 한국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투자 장애 요인

그러나 물류의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양곤 이외에 지역은 투자 시 물류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만성적인 전력 부족으로 인해 양곤 시조차 하루에도 수 차례 단전이 발생하며, 산업 단지의 경우에도 8시간 이상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반 가정은 물론 공장에서도 자가 발전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통신의 보급률이 낮고 정부로부터 사전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 용 상 통제가 심하다.

2003년 7월 미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인권 문제를 이유로 금융 및 무역 거래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였다. 유럽 등 서방국가들이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얀마 정부는 중장기적인

경제발전 전략 없이 임시 방편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4년 쌀 수출금지 조치, 2005년 말 갑작스럽게 진행된 행정수도의 이전 등이 있다.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통신, 수도 및 기타 시설 사용 시 (국내 항공료, 골프장 그린피 등) 내국인과는 달리 달러화를 징수함으로써 5~70배에 이르는 차별적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2002년부터 외화를 불법 유출한다는 이유로 외국 무역 법인의 신규 등록 및 갱신을 허가하지 않는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미얀마 간에는 투자보장협정이 아직 미체결 상태로 남아 있고, 대외 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절차 및 서류가 매우 복잡하며, 내국인과 동등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미얀마는 풍부한 농산물, 광물자원, 값싼 노동력, 중국, 인도, 태국과 접한 지리적 이점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가스, 전력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가 미얀마의 민주화, 인권, 마약문제 등을 이유로 미얀마 군사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얀마 군사 정부가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말 기준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는 누적 승인 금액으로 157억 달러이다. 1996년 28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외국인 투자는 2000년 2억 2천만 달러로 줄어들었고, 2001년에는 1천 9백만 달러로 급감했다. 국가별로는 2008년 12월 말 누계기준, △1위 태국 US\$ 73억 9천만, △2위 영국 US\$ 18억 6천만, △3위 싱가포르 US\$ 15억 5천만, △4위 말레이시아 US\$ 6억 6천만, △5위 홍콩 US\$ 5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 미얀마 직접 투자 금액 누계는 US\$ 2억 4천만으로 순위는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2006년 3월 말 태국이 60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소 건설 투자를 신고했고 최근 5년 동안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이다. 2008년도에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이 광업과 석유·가스 개발에 투자신고 했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 투자가 최근 3년간 전무한 실정이다. 미얀마의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는 2008년 12월 말 기준 32억 달러이며 동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 외 제조업이 16억 3천만 달러, 광업이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동 지역은 수출자유화 지역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물론 수출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할 전망이어서 향후 동 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어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해상 천연가스 개발 성공으로 투자유망지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중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미래 투자 지역으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인프라 미비, 고질적인 외환 부족, 선진국의 경제제재 조치, 정부 행정의 불투명성 및 예측 불가능성, 정부의 외국인 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 등은 투자 진출의 장애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중

(단위: US백만)

국별	투자액	비중	산업별	투자액	비중
태 국	7,392	47.05%	전 력	6,311	40.17%
영 국	1,861	11.85%	석유/가스	3,357	21.37%
싱가포르	1,553	9.88%	제조업	1,629	10.37%
중 국	1,331	8.47%	광 업	1,396	8.89%
말레이시아	661	4.21%	부동산	1,056	6.72%
홍 콩	504	3.21%	호텔/관광업	1,035	6.59%
프랑스	469	2.99%	축산/어업	324	2.06%
미 국	244	1.55%	교통/통신	313	1.99%
한 국	243	1.55%	공업단지건설	193	1.23%
인도네시아	241	1.53%	건 설	38	0.24%
네덜란드	239	1.52%	농 업	34	0.22%
일 본	213	1.36%	기타 서비스	24	0.15%
총 계	15,711	100.00%	총 계	15,711	100.00%

주: 투자허가기준(2008. 12월말 기준) 누적치

자료: 미얀마투자위원회(MIC)

국가별 투자동향

(단위 : US백만)

구 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태 국	29.0	6,034.4	0	16.2	15.0
영 국	0	0	240.7	0	0
싱가포르	0	0	160.8	5.0	0
중 국	126.6	0.7	281.2	0	856.0
말레이시아	0	0	0	0	0
홍 콩	0	0	0	0	0
한 국	0	0	37.0	12.0	0
인 도		30.6		137.0	0
기 타	2.7	0	33.0	2.5	114.0
합 계	158.3	6,065.7	752.7	172.7	985.0

주: 회계연도기준(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자료: 미얀마 중앙 통계청, Selected Monthly Indicators

산업별 투자동향

(단위: USD 백만)

구 분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전 력	0	6,030.0	281.2	0	0
석유.가스	142.6	35.0	471.5	137.0	114.0
제조업	3.5	0	0	18.7	0
광 업	6.0	0.7	0	5.0	856.0
부동산	2.7	0	0	0	0
호텔.관광업	3.5	0	0	0	15.0
교통.통신	0	0	0	0	0
축산.어업	0	0	0	12.0	0
합 계	158.3	6,065.7	752.7	172.7	985.0

자료: 미얀마 중앙 통계청, Selected Monthly Indicators

3. 우리기업 투자동향

미얀마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12월말 기준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는 37건, 2억 4,300 만 달러이며 미얀마 투자 순위 9위에 올라있으며 전체 투자의 1.55%를 점하고 있다. 반면, 한국 수출입 은행 통계로 본 2008년 12월말 기준 실제 투자 규모는 9,675만 달러이며, 2004 년 이후 한국의 대 미얀마 신규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현황

(단위: 건, US 천)

신고 건수	신규 법인 수	신고 금액	송금 건수	투자 금액
118	53	254,413	182	96,751

주 1: 2008년 12월 말 기준(누적)

주 2: 신고 건수는 공동 투자, 증액 투자를 포함하고, 송금 건수는 동일 월내 2회 이상 동일 현지법인 앞 송금 시 1건으로 집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대 미얀마 투자 대부분은 의류 봉제업으로 대우 봉제, 오팔, 미얀스타 등 약 40여 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투자 업종인 봉제업은 2003년 미국의 대 미얀마 경제 제재로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위기를 맞이한 바 있으나 2005년부터 유럽, 일본으로부터 오더가 증가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서 미얀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로 가발 제조 업체인 하이모는 2005년부터 미얀마에 현지 공장을 시험 운영하면서 중국 내 생산 공장을 미얀마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대 미얀마 최초의 투자 진출은 1990년 대우전자가 가전제품 생산에 투자한 것이 처음이며 이후 대우 계열사의 투자가 잇따랐고 현재는 봉제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2000년부터는 신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도되어 에스콰이어, 써니 상사 등 두 개의 정장화 생산 업체가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 일본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미국의 미얀마 경제 제재 조치로 대미 의류 수출이 막히면서 많은 한국 봉제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투자 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한국 업체의 미얀마 투자가 급속히 침체되었다. 2002년 이후 현대종합상사, CJ, 대우전자 등이 철수했으며 미얀마에서 건재자용 아연강판을 생산하던 포스코는 2005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2007년 다시 재개한 바 있다.

의류봉제 및 신발봉제 이외에 일반 제조업으로는 대우목재(합판), 더원(등나무 가구 및 소품), 머큐리레이스(PVC 호스) 삼공(고무보트), 미원쉐타진(PVC 파이프, 플라스틱 연포장재), 에스박스(카톤 박스), UPI(플라스틱 생활용품)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소규모 개인 무역 업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식 외국인 투자 절차를 밟지 않고 미얀마인 명의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봉제, 가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임업, 수산업 등 현지의 풍부한 원료 활용이 가능한 산업, 곡물 및 바이오작물 등 농업, 부동산 등 서비스 투자를 검토, 진행하는 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투자 기업 현황

회사명	업종	제품명	진출형태	진출연도	종업원수	모기업
대우무역	무역업	일반상품	지사	1995	50	(주)대우인터내셔널
효성	무역업	철강, 화학제품	지점	1995	7	효성
대우목재	제조업	합판	합작	1992	1000	(주)대우인터내셔널
대우봉제	제조업	의류봉제	합작	1991	2700	(주)대우인터내셔널
미원세타진	제조업	PVC파이프	합작	1994	230	대상
포스코	제조업	아연도금강판	합작	1997	140	포스코
머큐리레이스	제조업	PVC호스	합작	1999	130	
삼공물산	제조업	고무보트	단독	1996	200	삼공물산
UPI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합작	1995	80	
더원	제조업	등나무가구	단독	2002	110	더원
씨니	제조업	가족구두	단독	2000	600	
태평양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9	800	태평양물산
세계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합작	1990	800	에스지위카스
제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6	1300	스타일러스
해외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8	750	해외무역

우리나라 주요 투자 기업 현황

회사명	업종	제품명	진출형태	진출연도	종업원수	모기업
대우무역	무역업	일반상품	지사	1995	50	(주)대우인터내셔널
효성	무역업	철강, 화학제품	지점	1995	7	효성
대우목재	제조업	합판	합작	1992	1000	(주)대우인터내셔널
대우봉제	제조업	의류봉제	합작	1991	2700	(주)대우인터내셔널
미원세타진	제조업	PVC파이프	합작	1994	230	대상
포스코	제조업	아연도금강판	합작	1997	140	포스코
머큐리레이스	제조업	PVC호스	합작	1999	130	
삼공물산	제조업	고무보트	단독	1996	200	삼공물산
UPI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합작	1995	80	
더원	제조업	등나무가구	단독	2002	110	더원
씨니	제조업	가족구두	단독	2000	600	
태평양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9	800	태평양물산
세계물산	제조업	의류봉제	합작	1990	800	에스지위카스
제우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6	1300	스타일러스
해외	제조업	의류봉제	단독	1998	750	해외무역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투자법 개요

미얀마는 1998년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Foreign Investment Law, FIL)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투자 형태로는 단독 투자나 합작 투자가 가능하며 합작 파트너로는 개인, 민간 기업, 정부 공공 기업 등이 될 수 있다. 합작 투자 시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 투자 자금의 35%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투자 업종에 따른 최소 필요 자본으로는 제조업 50만 달러, 서비스업 30만 달러이다.

나. 장려 및 제한 분야

외국인 투자 장려 분야는 수출 촉진 및 확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 개발, 첨단 기술 습득,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재화 및 용역 생산 지원, 고용 기회 창출,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사업 개발 등이며 이들 분야에 대하여는 비교적 투자 승인을 받기가 쉽지만 통신 등 정부 규제 분야는 외국인 진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얀마 투자 위원회는 민간 참여가 제한되는 분야, 소관 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 등을 명시하고 있다. 먼저 민간 참여가 제한되는 분야는 국영 기업법에 의거해 국영 기업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분야로 12개 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 ① 티크목(자피나무) 벌채와 그 판매·수출
- ② 가정소비용 땔나무, 장작을 제외한 식림 및 삼림 관리
- ③ 석유·천연가스의 채굴·판매
- ④ 진주·비취 그 외 보석의 채굴·수출
- ⑤ 물고기·새우의 양식
- ⑥ 우편·통신사업
- ⑦ 항공·철도사업
- ⑧ 은행·보험사업
- ⑨ 라디오·TV 방송사업
- ⑩ 금속의 채굴·정련과 수출
- ⑪ 발전사업
- ⑫ 치안·국방상 필요한 물품의 생산

소관 관청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호텔업, 관광업, 금융업 등이다. 이들을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호텔업 또는 가옥 임대업
 - 회사 또는 개인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호텔·관광부에 사전 승인을 구하고, 그 승인을 얻어서 호텔·관광국에 사업 허가를 신청한다. 라이선스는 2년간 유효하고, 또한 신청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 관광업
 - 여행기획·운영업, 여행 대리점, 여행 운송업, 여행 가이드를 하려고 하는 회사 또는 개인은, 호텔·관광부로부터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는 2년간 유효, 또한 신청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 금융업
 - 금융업에는 상업은행, 투자 또는 개발은행, 파이낸스 회사, 신용조합 등이 포함된다. 국영, 민간 공동 사업, 민간 여하를 불문하고 금융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자는 미얀마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의 금융 업자(은행을 포함)가 주재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다. 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법에서 정한 요건에 의해 설립된 기업은,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개시로부터 3년간 법인소득세 면제가 인정된다. 또한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인정하면, 아래의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단, 이들 우대 조치가 어떠한 조건으로 인정될 지에 대한 규정은 없고, 신청에 의해 MIC가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포괄적인 우대 조치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고는 하나, 개별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다.

- 개업 후 3년간의 소득세 면제 경과 후, MIC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면세 또는 경감 기간의 연장
- 업무상 이익이 1년 이상 재투자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치
- 업무상 사용되는 설비, 기계, 기구, 건물, 기타 유형 고정 자산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
- 미얀마에서 생산, 수출할 경우, 수출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한 감세(한도 50%)
- 외국인 고용자의 소득세를 떠맡아서 지불하고, 그 지불을 법인세 과세 소득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 외국인 고용자의 개인 소득세 지불세율에 미얀마 거주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 미얀마에서 발생한 업무에 관계되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해당 연도 과세 소득으로부터의 공제 손실에 대한 3년 간(사업 연도)의 이월
- 공장 등의 가동에 있어서 기계 설비, 부품 및 원재료의 수입 관세, 기타 국내 제세에 대한 감면 조치
- 공장 등의 가동 완료 후, 영업 생산 개시로부터 3년간의 원재료 수입 관세, 기타 제세에 대한 감면 조치
- 수출용 재화에 대한 상업세 면제

라. 투자 형태

1)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외국인 투자자는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설립할 수 있으며 100% 단독 투자하거나 파트너와 합작 투자가 가능하다.
 - 파트너로서는 개인, 민간 기업, 미얀마 정부 기업 등 제한이 없음.
 - 발기인: 2인 이상의 주주
 - 최대 주주의 수는 50인
 - 최소 2인 이상의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의 변경 시 14일 이내에 회사 등록 사무실(CRO)에 통보
 - 지분 소유에 대한 변경 시 1개월 내 CRO에 통보
 - 합작 투자 시, 외국인 자본 비율은 최소 35% 이상이어야 함.

2) 지점 및 대표(연락)사무소

- 미얀마 기획경제개발부 산하 회사등록사무소(CRO)에 회사 등록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지점 및 대표(연락)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
 -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며, 미얀마 투자위원회의 투자 승인 없이도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y Act)에 따라 회사 등록이 가능함.

5. 진출형태별 절차

법인이나 지점, 연락사무소 등 진출 형태별 투자 승인 절차는 동일하다. 지점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 「미얀마 회사법」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2년부터 외국계 무역 법인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 또한 무역 법인으로 간주되어 신규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와 더불어 산족, 카렌족 등의 반군 활동, 침체된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미얀마에 투자 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특히 인프라 사정이 열악한 바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요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며 정부 행정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관료주의, 비밀주의가 팽배하며, 조령모개식 정책이 남발되고 있어 투자 기업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 법인 설립

□ 투자 준비 단계

1) 투자 형태의 결정

100%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 투자 기업을 설립할 것인가, 단순히 모기업의 지사를 설립할 것인지 등의 투자 형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 미얀마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 기업은 다음의 2가지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 100% 자기 자본을 투입 소유주가 되는 경우
 - 미얀마 정부 기업이나 민간 업체와 합작 설립하는 경우(외국인 자본 35% 이상. 단, 국영 기업과의 합작일 경우에는 최대 50%까지만 허용)
- 납입 자본금: 하기 금액 이상이어야 MIC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제조업: 50만 달러 이상
 - 서비스업: 30만 달러 이상

그러나 미얀마 회사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 역시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 자본금은 제조업 100만 짜트(16만 달러), 무역업 50만 짜트(8만 달러), 서비스업 30만 짜트(4만 8,000달러)가 된다. 외국계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 또는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투자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서 투자할 경우 초기 3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무역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 미얀마 회사법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2년부터 외국계 무역 법인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2) 사전 조사

투자 업종 및 투자 형태를 결정하였으면 필히 동종 분야에 투자한 경험자로부터 투자 허가 기관 및 정부 관계 부처, 특별한 투자 절차 유무, 현재 시장 상황 및 향후 전망, 정부 접촉 요령 등에 대해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또한 사무실이나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토지 임대 계약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 외국 기업 및 외국인에게는 토지 소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10~30년 단위로 체결한다. 10년씩 추가 연장할 경우, 최장 50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3) 합작 파트너 선정

합작 기업의 설립에 있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진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투자 승인

투자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면, MIC로부터 승인을 받고 회사를 등록하면 된다. MIC 투자 허가 단계에서 법인 설립까지를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투자 허가 및 회사 등록 절차도



해외 투자 진출 절차별 관계 기관, 서류, 소요 비용, 소요 기간

구분	투자 허가 신청	무역업 허가 (permit to trade) 및 회사등록	무역업자 등록(exporter /importer registration)
신청 기관	○ 투자위원회(MIC):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Office No. 17, Naypyidaw, Myanmar - Tel: (95-67) 406089 - Fax: (95-67) 406333 - E-mail: DICA.NAPD@mptmail.net.mm	○ 경제기획부산하회사등록사무소: Company Registration Office - Office No. 17, Naypyidaw, Myanmar - Tel: (95-67) 406089 - Fax: (95-67) 406333	○ 상업부 산하 무역등록국: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Dept - Corner of Bo Sun Pat Stand Merchant St, Pabedan Tsp, Yangon - Tel: (95-1)371204
제출 서류	- 투자업체(또는 개인) 재정도: (최근 1년 간 회계 감사를 필한 검토서) - 영업상태에 관한 은행 추천서 - 투자신청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한 세부 기술서 - 연간 예상 순이익 - 연간 예상 외환가득액, 연간 사업 운영 자금 - 투자비 회수 기간 - 고용 창출 효과 - 국민 소득 기여 정도 - 국내외 시장 동향 - 100% 단독투자의 경우 투자기관 주무 부서와의 예약서 초안 - 합작 투자인 경우 현지 업체와 체결한 비망록, Articles of Association, 계약서 초안	- Form A - Memorandum of Association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Balance Sheet and Profit and Loss - questionnaire - 기타(미얀마에서 수행할 영업 활동, 미얀마 기업 설립 후 1년간 소요될 운영 자금) - 여권 사본 및 은행 구좌 사본을 반드시 첨부	- exporter/importer registration form - 회사등록증 - Form 6 - Form 26 여권사본
소요 비용	공식 소요 비용은 없음	- 신청비: 100달러 - 등록비: 1,500달러 - 갱신비: 500달러(2년마다 갱신)	50,000K(1년), 100,000K(2년)
소요 기간	건별로 다르며 최소 수개월 소요	건별로 다르며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됨	약 45일

주: 상기 허가를 얻음으로 투자 절차는 완료되나 실제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수입허가 신청 시 UMFCCI 회원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 UMFCCI 회원가입 서류절차
 - 회원 가입 신청서(application form)
 - 회사 등록증(원본 + 사본)
 - 무역업자 등록증(원본 + 사본)
 - form 26(원본 + 사본)
 - letter of authority
 - 소요 비용: 450달러(멤버십 비 300달러 + 연회비 150달러)

-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미얀마 상공회의소)
 - Add: 29, Minyekyawswa Rd, Lanmadaw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95-1) 214344~9 / Fax : (95-1) 214484
 - E-mail: umcci@mptmail.net.mm
 - Contact: Mr. Win Myint (President)
 - Contact: Mr. Zaw Min Win (General Secretary)

□ 공증 절차 및 비용

현지 법무 법인을 통해 기업정관, 재무제표, 위임장 등은 공증이 가능하나 대부분 공증만 별도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의 하나로 공증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

현지 법인 등록 완료까지 필요한 컨설팅 비용은 약 4,000달러임.

□ 법무 법인 및 컨설팅 업체

- NK Legal
 - 주소: 57, Pyay Road, 6½ Mile, Hlaing Township, Yangon
 - 전화: (95-1) 538671, 512265
 - 팩스: (95-1) 524828
 - E-메일: unk@myanmar.com.mm
 - 담당자: Mr. Nyein Kyaw
 - 성격: Private
 - 업무 분야: Investment consultancy
 - 참고: KOTRA 양곤 KBC 투자진출지원 고문 변호사
- Inthanon PTE Ltd
 - 주소: 57, Pyay Road, 6½ Mile, Hlaing Township, Yangon
 - 전화: (95-1) 538671, 512265
 - 팩스: (95-1) 524828
 - E-메일: uhl@myanmar.com.mm
 - 담당자: Mr. Htain Lin (세무, 회계)
 - 성격: Private
 - 업무 분야: Auditing & accounting
 - 참고: KOTRA 양곤 KBC 투자진출지원 고문 회계사
- Win Thin Consulting Limited
 - 주소: 2B-2C, No. 182-194, Hnin Si Condominium, Botahtaung Pagoda St, Botahtaung Township, Yangon
 - 전화: (95-1) 201798, 296164
 - 팩스: (95-1) 201798
 - E-메일: winthin@mptmail.net.mm
 - 담당자: Mr. Win Thin
 - 성격: Private Company
 - 업무 분야: Legal, Investment consultancy, Auditing & accounting

나. 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미얀마 회사법에 따른 설립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2년부터 외국계 무역법인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 개설은 미얀마 기획경제개발부 산하 회사등록사무소(CRO)에 회사 등록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며 기업 정관 대신 본사 정관 사본, 본사 재무제표 사본 등을 본사 주재국 미얀마 대사관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 자금의 송금 제한, 자금 인출 시 세금 징수 등 운영상의 문제로 정식 승인 허가를 받아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 공장 설립

1) 공장 설립 가이드

미얀마에서 공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정부 또는 국영 기업의 기존공장 임차, 산업 공단 내 부지 임차 후 건축 등의 방법이 있다.

정부 소유 공장은 경제난 및 외국 기업의 철수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어 현재 비어있는 공장으로 잘만 물색하면 좋은 공장을 싼값으로 임차할 수 있다. 또한 흘라잉따야, 쉐빠타 등 양곤 인근 산업 공단 내 부지 임차가 용이하며, 민간업자가 자체 토지를 소유하고 외국 기업과의 합작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외국인 명의의 회사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재산권 행사가 안되지만 제반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봉제 공장 및 음식점에서 Sleeping Partner 문제로 곤란을 겪는 등 Sleeping Partner 문제가 불거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 공장 부지의 확보

마땅한 공장 부지를 물색하였으면 관할 정부 기관과 임대 계약을 추진한다. 외국인에게는 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장기 임차(30년) 방식의 토지 이용 계약을 추진한다. 토지마다 관할 정부 기관이 상이하므로 관할 기관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한다. 즉 관할 기관마다 관리 방식이 다르므로 외국 투자 기업에 호의적인 기관을 선정한다.

대부분 공단 지역의 부지 임대는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 산하 DHSHD(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에서 관장하며 유일하게 뻘마빈 공단만은 UMEHL에서 관장하고 있다.

3) 토지 사용 계약

토지 관리 기관과 MOU를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미얀마 투자 위원회(MIC)에서 투자 허가를 승인 받은 후 정식으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 토지 계약을 맺기 이전에 임차 예약료(Reservation Fee)로서 에이커 당 20만 짜트를 내며 투자 승인 후 반환된다.

임대 계약은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며 대개 10년 단위 갱신이 허용된다. 연간 토지 임대료는 공단 지역인 경우 1평방미터 당 3달러 수준이며 지역 및 관할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6. 투자입지여건

미얀마의 경제 중심지는 양곤으로 내수판매든 수출용이든 제조업을 영위하기에는 양곤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양곤에 조성된 공업 단지는 쉘레타, 사우스다공, 흘라잉따야, 밍글 라돈 산업 단지 등이 있으며 공단 중 양곤 시내에서 약 8마일 떨어진 흘라잉따야 공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양곤 시에서 남쪽으로 약 25킬로미터 떨어진 필라와(Thilawa)에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법령을 2007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필라와 특별경제구역은 수출자유구역에 해당되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최대 8년간의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수출입 허가를 위한 정부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어서 수출입 허가 발급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양곤 지역 공업 단지

Industrial Zone Name	Established Year	Size	Developer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1	1990	306 Acres	DHSHD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2	1992	158 Acres	DHSHD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3	1999	194 Acres	DHSHD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1992	95 Acres	DHSHD
South Dagon Industrial Zone 1	1992	475 Acres	DHSHD
South Dagon Industrial Zone 2	1992	204 Acres	DHSHD
South Dagon Industrial Zone 3	1995	35 Acres	DHSHD
Hlaing Thar Yar Industrial Zone 1-5	1995	13,000 Acres	DHSHD
Dagon Port(Seikkan) Industrial Zone	2000	1,208 Acres	DHSHD
Yangon Industrial Zone	2000	500 Acres	Zaykabar and DHSHD
Mingalardon Industrial Park	2000	744,500 Sq M	Mitsui Group, Hong Leong Group, Kepple Group and DHSHD
Thanlyin-Kyauktan Industrial Zone	1997	3,039 Acres	Simmardev Int'l Pte Ltd and DHSHD
Thilawa Industrial Zone	2001	125 Acres	DHSHD
Dagon East Industrial Zone	2001	500 Acres	DHSHD

주: DHSHD는 건설부 산하 주거주택 개발국(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 Housing Development)의 약어임

양곤 지역 이외에도 만달레이, 사가잉, 예아와디 등 각 주 별로 공업 단지가 있으나 양곤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외국 기업이 입주할 만한 공단은 없다.

기타 지역 공업단지

Industrial Zone Name	Established Year	Size	Developer
Mandalay Industrial Zone 1	1990	810 Acres	Mandalay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Mandalay Industrial Zone 2	1997	137 Acres	Mandalay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Myingyan Industrial Zone	NA	164 Acres	Mandalay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Meiktila Industrial Zone	1997	385 Acres	Mandalay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Monywa Industrial Zone	1992	490 Acres	Sagaing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Yenangyaung Industrial Zone	1998	99 Acres	Magway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Pakokku Industrial Zone	NA	321 Acres	Magway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Bago Industrial Zone	NA	NA	Bago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Patheingyi Industrial Zone	1993	102 Acres	Ayeyarwaddy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Myaung Mya Industrial Zone	NA	102 Acres	Ayeyarwaddy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Hinthada Industrial Zone	NA	NA	Ayeyarwaddy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Myeik Industrial Zone	NA	NA	Tanintharyi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Ayeyarwady Industrial Zone	1999	287 Acres	Shan State Division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Mawlamyine Industrial Zone	NA	162 Acres	Mon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 흘라잉따야 공업 단지

양곤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흘라잉따야 공단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흘라잉따야 공단은 기존에 세워진 쉐빠따, 사우스다공 공단의 약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급속하게 성장했으며 현재는 가장 대표적인 공단으로 자리잡았다. 1995년 설립되었으며 1부터 5공단까지 갖추고 있다. 양곤 시내에서 8마일, 양곤항에서 13마일 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13,000에이커에 이른다.

건설부 산하 주거주택 개발국(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 Housing Development: DHSHD)이 개발했으며, 입지 조건이 좋아 노동 인력을 구하기에도 수월한 편이다.

- 공업 단지 명: 흘라잉따야 공단(Hlaing Thayar Industrial Zone 1-5)
- 설립 연도: 1995년
- 위치: 양곤 흘라잉따야 타운쉽
- 크기: 13,000 에이커
- 개발자: 건설부 산하 주거주택개발국(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Housing Development)

- 소요 경비
 - 토지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3달러
 - 관리비: 에이커당 월 20달러(공단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 임차예약비: 20만짜트(계약완료 후 반환)
 - 인프라개발비: 에이커당 150만짜트(1회 납부)
- 입주 소요 기간: MIC 투자승인(3개월)과 기타 공식 절차(2~3개월) 포함, 임차 예약일로부터 최소 5개월 소요
-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초기 3년간 소득세 면제. 공단만의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음.
- 교통
 - 항구: 양곤항에서 8마일, 필라와 컨테이너부두에서 25마일
 - 철도: 인세인 화물역에서 5마일
 - 항공: 양곤 공항에서 7마일
 - 도로: 양곤-빠떼인 국도변에 위치해있으며 공단 내 도로길이는 30마일에 이름
- 전기: DHSHD이 전기 공급을 책임지며 산업용 전기는 0.08달러/Kwh
- 산업 용수: 상수도 사용료는 1,000갤론당 4달러이며, 자체 우물을 파서 지하수 사용 가능
- 전화 및 팩스: 미얀마 통신청으로부터 라인당 2,000 달러에 구입 가능. MIC와 DHSHD가 전화 및 팩스라인 확보지원
- 입주 업체: 의류봉제, 신발봉제, 식품류, 화학제품, 종이류, 기계류, 전기전자, 임산물, 일반 소비재 등 400여 개 업체 입주
- 한국업체: 써니상사, 에스콰이어, 에스박스, UPI, 파이오니아, 미원쉐타진, 마이더스, 에야와디, SMK, 오팔, 에스 등
- 관할 기관
 - 기관명: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 (DHSHD)
 - 주소: 228/234, Bogyoke Aung San Road., Botataung Tsp., Yangon, Myanmar
 - 전화: (95-1) 392522
 - 팩스: (95-1) 392558
 - 담당자: Ms. Moe Thida(Staff Officer)

7. 노무관리

가. 외국인 취업 규제

외국 기업이 고용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가 인가하는 것으로 한다. MIC는 외국인의 직종, 인원 수, 기간, 기술을 고려해서 외국인 고용 허가를 낸다.

나. 체류 허가

10주 비즈니스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 후 1년간 유효한 장기 체재 비자를 취득한다. (연장 가능) 3개월 이상 체재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이 필요하다.

미얀마 대사관이 발급하는 비즈니스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 후에 절차를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체류 허가 신청에 있어서 정부 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하지만, 어떤 업종, 사업에 종사하는가에 따라서 추천하는 기관도 다르다. 여기서는 무역 업체를 예로 든다.

- ①한국 대사관의 추천서, ②신청자의 이력서, ③여권, ④Form26(사업체 임원의 일람을 기재한 것), ⑤Form1(국가계획 경제 개발부에 의해 미얀마 국내에서의 상업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의 서류), ⑥소속이 외국 기업의 지점인 경우는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Branch Office in Myanmar(상무부에 의한 지점의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첨부 서류를 준비한다.
- 장관 앞으로 체류 허가(Stay Permit) 및 복수 비자(Multiple Journey Special Re-entry Visa)를 신청하기 위한 추천서(Recommendation) 발급 의뢰서를 제출한다. 이때 1)에서 준비한 서류를 첨부한다.
- 2)에서 취득한 추천서를 첨부해서, 입국 관리국에 체류 허가, 복수 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다. 현지인 고용 의무

5인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할 때에는, 지방노동사무소(Township Labor Office: TLO)에 고용 조건을 통지하고, 동사무소로부터 입수한 응모자 리스트를 기본으로 면접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국의 허가를 받아서 신문에 모집 공고를 게재할 수도 있다. 채용 후에는 노동국에 채용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고용 가능한 피고용자는 18세 이상이다. 적은 인원이라면 지인을 통해서 찾는 편이 신원 보증 면에서도 확실하다. 여러 명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노동성의 Head Office에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1) 모집 절차

- 고용자는 필요한 피고용자의 타입, 피고용자 수, 자격 요건, 직무 내용, 고용 조건 등의 모집 조건을 서식에 따라서 해당 지역 TLO에 통지한다.
- TLO로부터 그 직무에 적합한 등록 구직자의 추천 리스트가 고용자에게 송부되어 온다.
- 고용자는 그 가운데에서 최적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
- 고용자는 선택한 피고용자 리스트를 노동사무소에 통지한다.
- 선택된 피고용자는 고용자로부터의 정식 채용 통지로서 노동 사무소로부터 서류 Form No.7를 받는다.

2) 고용 계약

고용자는 고용의 상세 조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 그것에 쌍방이 서명해서 피고용자의 고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 시에는 수습 기간을 몇 개월 정해놓고, 그 기간이라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 기재하는 편이 좋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막기 위해, 벌칙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편이 좋다.

라. 임금

1) 임금 수준

일반 제조업체 생산직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은 20~25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무직의 경우 50~100달러 선이다.

- 일반적인 급여 체계: 기본급,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보너스로 구성
 - 기본급(Basic Pay)
 - 시간외수당(Overtime Charges): 시간당 계산하며 기본급의 200%
 - 휴일수당(Holiday Charges): 일수로 계산하며 기본급의 200%
 - 상여금(Bonus): 연간 100 ~ 200% 지급
- 최저 임금: 민간 기업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다.

2) 퇴직금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급여의 100~500%를 지급해야 한다.

- 3개월 미만: 월 급여의 100%
- 3개월 이상 1년 미만: 월 급여의 200%
- 1년 이상 3년 미만: 월 급여의 300%
- 3년 이상: 월 급여의 500%

마. 노동 조건

1) 노동 시간

법정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며, 초과 근무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휴가

- 휴가의 종류 및 일수
 1. 유급 휴가
 2. 정규 휴가(Casual leave): 연간 6일. 사전허가를 득한 후 실시
 3. 연차 휴가(Earned leave): 연간 10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휴가 개시 최소 3일 전에 관리자에게 보고 후 실시
 4. 병가(Medical leave):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30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실시
 5. 무급 휴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

3) 노동조합

법적으로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지 않아 노조가 없는 상태이다.

4) 해고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해고 시에는 최소 3차례의 경고 후 해고할 수 있다.

- 1단계: 3일간 작업장 대기 명령 및 주의장 발송
- 2단계: 1차 경고 서한, 2차 경고 서한
- 3단계: 3차 경고 서한, 2주간 정근 명령, 해고

8. 조세제도

조세 행정은 미얀마 재무세입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가 관장하며 실무적으로는 내국세국(Internal Revenue Dept.)과 관세국(Customs Dept.)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 법인세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30%, 외국 기업의 지정 등은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된다.

1)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 소득, 세율

미얀마에서 설립된 법인은 전부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전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외국 투자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은, 미얀마 국내 소득만이 대상이 된다. 또 외국 기업의 지정 등은 당지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 미얀마 국내 소득이 대상이 된다.

2) 과세 구분과 적용세율

구분	세율
○ 미얀마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30%
○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특별 허가를 통해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외국 기업	
○ 비거주 외국 기업(외국 기업의 지정)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 자본 이익	10% 40%
- 거주기업	
- 비거주기업	

나. 기타 세제

미얀마의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업세, 관세, 원천세 등 총 14종류가 있다.

1) 과세 연도

과세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세무 신고서는 6월 말까지 내국세입국으로

2) 과세 대상과 범위

- 미얀마 거주자 및 거주법인: 전 세계 소득이 대상
- 비거주자 및 외국 투자법에 의거한 기업: 미얀마에서의 국내 소득만 대상
- 외국 기업의 경우, 외국 투자법에 따라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내 소득만이 과세 대상. 단, 세법상의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범위는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에서 취급이 달라 대단히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

3) 개인 소득세

□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 소득·세율

연간 183일 이상 체재하면 거주자가 된다. 그 경우 과세 대상 소득은 법인과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이다. 통산 183일 미만의 체재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급여 소득(급여·임금·상여·수당·축의금·커미션·할증금 등)의 전체 및 기타 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그 외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으로 이루어지지만, 적용 세율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자동차·주택 수당 등 각종 부가 급여도 급여 소득으로서 계산된다. 소득별 차등 누진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외화 수입 (미국 달러 또는 FEC) 뿐인 경우의 특례

1997년 12월 이후, 과세 대상 소득이 외화 기준 소득뿐인 경우, 외국 국적의 거주자는 15%, 미얀마 국적의 거주자는 10%의 원천 과세로 하는 간편법이 적용된다.

구분	세율
○ 급여 - 특별 허가로 미얀마 정부 프로젝트에 근무하는 외국인 - 외국인 투자법인 근무하는 외국인 -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 외화 소득이 있는 내국인	20% 10% 15% 10%
○ 기타 소득	35% 또는 누진세율(5~40%)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
○ 자본 이익 - 거주자 - 비거주자	10% 40%

4) 원천세(원천징수세)

이자 소득, 로열티,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천과세가 부과된다.

소득 형태	거주자 세율	비거주자 세율
이자 소득	15 %	15 %
라이선스, 트레이드마크, 저작권 등에 대한 로열티	15 %	20 %
정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에 의한 계약 대금	3 %	3.5%

자료: 미얀마 투자위원회

5) 관세Custom Duties

관세는 관세율표의 과세 표준에 의거해 과세된다. 과세 표준은 CIF가격에 0.5%를 더한 금액이고, 현재 대부분의 수입 물품에 관세가 붙는다(아울러 상업세도 부과된다). 단,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수입해, 가공 후 일정 기간에 재수출하는 경우, 또는 MIC의 승인을 얻은 것은 관세가 감면된다. (수입 관세의 면세 및 환부 제도)

6) 상업세Commercial Tax) 및 원천소득세(Income Tax)

상업세는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과세되는 일종의 부가가치세 또는 소비세이다. 1990년 3월 제정된 상업세법(The Commercial Tax)이 도입되어, 수출입에도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다. 1999년 1월 이후, 모든 수출 품목 및 국내에서의 외화 매상 (서비스의 대가를 포함)에 대해서 8%의 상업세와 2%의 원천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수입품의 경우 상업세는 세관에서 관세와 함께 부과되며, 품목에 따라 세율은 7가지로 분류되며 0~200%가 부과된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 관리 제도 개황

모든 외환 거래는 Foreign Exchange Control Committee에서 전담, 미얀마 짜트화는 SDR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나, 외국 화폐에 대한 공식 환율이 시장 환율보다 100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

과실 송금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지만 실제로는 외국 투자 기업의 과실 송금 자체가 복잡한 행정 체계로 원하는 일자에 송금이 불가능하며, 송금액을 어떻게 조달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실상 송금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많은 외국 기업들이 환치기 또는 핸드 캐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과실 송금은 미얀마에서 달러화 수입이 있는 업체만이 가능하다. 달러화 수입이 있다는 것은 수출업체 또는 달러화 내수 판매대금이 있는 업체만 해당한다. 이들 업체의 경우, 과실 송금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법인세 납부가 완료 되었다는 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 이 증명서를 가지고 미얀마 투자 위원회 (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에 신청, 과실 송금 허가 서류를 발급받는다. MIC 허가 서류를 가지고 외환취급은행(MICB 또는 MFTB)에 송금 요청을 한다. 법으로는 이러한 과실 송금이 제 한적으로 인정되지만 현실에서는 MIC가 과실 송금 허가 서류 발급을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과실 송금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수출 실적 없거나 달러화 내수 판매가 없는, 즉 대부분의 미얀마 내외국 기업들은 원천적으로 과실 송금이 불가능하다.

나. 외환 사정

미얀마는 미국 등 서방의 경제 제재 조치, 국제 금융 기구의 차관 공여 중단, 외국인 투자금강 등으로 심각한 외환 부족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Teak, Hard Wood, 보석, 임산물 및 농산물 수출로 외화를 가득해 왔으나, 가득

외화의 상당 부분을 현 군사 정부의 군용 및 기타 정부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어 대외 수입 및 시설 투자 등의 외화 사용에는 한계를 보인다. 2008년 기준 미얀마의 외환 보유고는 21억 달러로 추정된다.

다. 자금 조달

미얀마 국내 금융 기관은 달러 대출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현지화(짜트) 대출은 가능하지만 한도액이 대단히 낮고 절차도 복잡하다. MICB로부터 현지화 담보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투자 기업은 담보가 될 만한 부동산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산을 소유할 수 없기(사용권밖에 얻을 수 없다)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외화 기준 대출에 대해서는 98년 3월 이후 민간 상업은행의 외환 취급이 중단되었고 국영은행 2곳 (MFTB, MICB)은 대출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에 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미얀마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44달러의 최빈 개도국의 하나로 절대적인 가격 위주의 시장이다. 국내 제조업 발달 수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 소비재의 경우, 값싼 중국산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으며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제품이 중국산보다 고급으로 인식된다. 미얀마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시티마트에서 판매되는 생활용품 대부분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제품이다.

나. 한국 상품 인지도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2002년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02년 월드컵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한국은 2002년 말 미얀마 TV에 방영된 ‘가을동화’ 드라마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미얀마에 한류 바람을 일으켰다. 송승헌, 장동건, 배용준, 송혜교, 최지우 등 한국 연예인이 최고의 외국 배우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김치 등 한국음식 또한 미얀마에 널리 소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국가 이미지, 한국 상품 이미지가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TV, 에어컨, 핸드폰 등 일부 전자 제품과 정보 통신 제품은 소니, 노키아 등과 함께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미얀마에 꾸준히 공을 들인 대우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고, 전자 제품으로 유명한 삼성과 LG 또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일본과 유럽 제품보다는 품질 면에서 떨어지지만 중국, 동남아, 대만 제품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고가로 인식된다. 한국 인상은 미얀마에 알려진 가장 유명한 한국 제품 중 하나로 미얀마에서 판매되는 인삼 비타민 캡슐 상당수가 한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다. 유통 채널

도매상을 겸한 수입상이 소매상을 거쳐 소비자로 전달하는 채널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수입상과 도매상이 다른 경우도 있다. 한국의 백화점과 같은 고급 쇼핑 장소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다공센터, 양킨센터, 블라존, 유자나플라자 등 슈퍼 마켓과 소형상점들이 입주한 쇼핑몰이 있다. 한국의 남대문 시장과 같은 시장으로는 보조 마켓, 밍글라마켓, 띠리밍글라마켓 등이 있다.

라. 유망 상품

한국 제품은 중국, 동남아 제품에 비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엄격한 수입 제한 정책으로 현재로서는 한국산 휴대전화가 대규모로 미얀마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시중에는 밀수된 한국산 휴대전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동차 역시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장이 열릴 경우, 한국 중고차의 미얀마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얀마의 도로 조건은 한국과 같이 왼쪽 핸들 차량에 적합하기 때문에, 현재 미얀마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 다만 원활한 자동차 부품 공급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한국산 화장품, 패션 액세서리, 의약품 등 소비재와 신문 용지, 인쇄 용지 등 종이류 역시 수출이 유망하다. 미얀마 정부가 주 수요 처인 철강제품, 기계류 또한 한국산이 호평을 받고 있다.

2. 물가정보

(1 US\$ = 1000 MMK / 2010년 1월 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MMK)
식품류	쌀 1kg	1,500
	계란 12개	1,200
	쇠고기 등심 1kg	5,120
	돼지고기 등심 1kg	3,400
	우유 500ml	550
	식용유 1L	2,050
	생수 1L	250
	맥주 (하이네켄 355ml, 1캔)	95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2,20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없음
	김치찌개 1인분	6,000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없음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25,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없음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120,000,000
	무연휘발유 1L	600
	자동차 등록비	50,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의무 없음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2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없음
	시내버스 기본요금	200
	택시 기본요금	1,500
통신	시내전화 요금 (외국인, 3분)	75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9,000
	휴대전화 요금 (외국인, 1분)	900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설치비 별도)	60,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600,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입학금 US\$5830 별도	6,036,0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입학금 US\$5830 별도	6,164,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입학금 US\$5830 별도	6,276,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55,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35,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10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35,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2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8시간
	출산휴가일수	3개월
	연간 국경일수	28일
	주5일 근무 여부	주5일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9,000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디렉터리, 잡지, 협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얀마 국내 전시회 또한 이용 가능하나 한국 업체 참가를 권할 만한 전시회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시회는 양곤 무역센터, 타마다 홀, 미얀마 컨벤션 센터 등 3곳에서 주로 열린다. 미얀마는 한국에서 정보를 입수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KOTRA 또는 대사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 기업인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1) 디렉터리

- Yangon Directory
- Myanmar Industrial and Commercial Industry
- Myanmar Yellow Pages

2) 잡지

- Living Color Magazine
- Dana Se Pwar Ye Magazine
- Myanmar Dana Business Magazine

3) 협회

- 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 Add: 29, Minyekyawswa Rd, Lanmadaw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95-1) 214344 ~ 9
 - Fax: (95-1) 214484
 - E-mail: umcci@mptmail.net.mm
 - Contact: Mr. Win Myint (President)
 - Contact: Mr. Zaw Min Win (General Secretary)
- Myanmar Industrial Association
 - Add: 29, Minyekyawswa Rd, Lanmadaw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95-1) 214830
 - Fax: (95-1) 214830 (Call First)
 - E-mail: intl-bus@aa.com.mm
 - Contact: Mr. Myat Thin Aung (Chairman)
- Myanmar Pharmaceutical & Medical Equipment Entrepreneurs Association
 - Add: No(44), Theinbyu Road, Pazundaung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95-1) 245674, 378253, 701354
 - Fax: (95-1) 378253
 - E-mail: nilay@mptmail.net.mm
 - Contact: Dr. Maung Maung Lay (Chairman)
- Myanmar Fishery Association
 - Add: Corner of Bayint Naung Rd & Say War Sat Yone St, West Gyo Gone, Insein Township, Yangon, Myanmar.
 - Tel: 95-1-683652 / 683653 / 683657
 - Fax: 95-1-683662
 - Email: fish-fed@mff.com.mm
 - Contact: Mr. Kyi Ngwe (General Secretary)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미얀마는 인터넷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쉽지 않다. 기업체 중에도 홈페이지를 갖춘 업체가 극히 제한적이며 특별히 이용 가능한 DB 또한 없다.

다만 양곤 디렉터리(www.yangondirectory.com.mm), 옐로페이지(www.myanmaryellowpages.biz) 등 품목별로 업체 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담고 있는 디렉터리 책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업체를 발굴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업체 정보 확인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사이트(www.etrademyanmar.com) 또한 바이어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 현지 바이어 발굴 시 유의 사항

자본주의의 역사가 20년이 안된 미얀마는 민간 부문의 발달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느린 편이다. 정경유착을 통해 급성장한 대기업이 있고, 의약품,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IT부품 등 일부 분야에 특화된 기업들이 빠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품목별, 업종별로 뚜렷한 특화 품목 없이 수익성 있는 사업에는 불특정 다수가 뛰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바이어와 접촉 초기에는 정보 입수를 목적으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이어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되 구매 의도가 확실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얀마 바이어들은 첫 대면에서 'NO'라고 말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비즈니스 의사 결정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 수집 노력이 필요하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문화적 금기 사항

미얀마는 135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써 버마족이 70%, 산족, 몬족, 카렌족 등 미얀마 소수 민족과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기타 종족이 나머지 30%를 구성하고 있다. 종교 역시 불교가 9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혼재한다. 따라서 문화 역시 다양한 종족과 종교 간 문화가 뒤섞인 가운데 이웃한 인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편이다.

미얀마에서 명함이나 선물을 건넬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왼손은 불결하다고 생각하며 화장실 용무를 볼 때를 빼고는 모두 오른손을 사용한다. 아울러 외국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나 외부에서는 수저나 포크 등을 사용하지만 집에서 자신들끼리 식사할 경우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그냥 음식을 먹는다.

미얀마 인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 메뉴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미얀마 인이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일부는 돼지고기 역시 먹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무난한 메뉴는 닭고기와 생선으로 구성된 요리이다.

미얀마 기업인에게 명함은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의 사무직이나 영업직 직원 대부분은 명함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사장을 제외하고는 명함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명함을 소지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함을 건네지 않을 때 재차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례가 된다.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얀마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은 활발한 편이지만,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더더욱 찾기 어렵다. 술과 담배를 한다면 직업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여성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상 결례가 된다. 여성과 인사를 할 때도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얀마는 과도기적 군사 정부 체제로써 민주화, 인권, 마약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받고 있으며, 체재 유지를 위해 극도의 정보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웅산 수지 여사 등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물이다.

미얀마인들의 공식 복장 및 평상 복장은 남녀 모두 론지(미얀마 전통 의상으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의 일종)에 슬리퍼(엄지발가락을 별도로 끼워 넣는 한국 개념의 굽없는 썬더)이며, 미얀마 남성이 한국 개념의 치마를 입는 것 역시 미얀마 고유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정부 관계자 중에는 현역 군인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무실에서 늘 군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 주제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미얀마 기업은 특정 분야에 특화되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분야의 제품이라도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어 상담 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아는 범위 내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I am Sorry'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으로 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15~30분 정도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기본이며, 상대방(외국인)이 이 정도 늦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 편이다. 미얀마인의 기본 복장이 론지와 슬리퍼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담 시에도 하의는 론지를, 상의는 넥타이 없이 와이셔츠를 입는 편이며, 신발은 슬리퍼를 신는다. 이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미얀마 정부 관리는 일반인에 비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존경 및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이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정도를 더해간다.) 따라서 이들을 만날 경우에는 옷차림, 대화 기법 등에서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한국 전통 식품(인삼차, 인삼 엑기스 등)이나 전통 소품(인형, 탈 등)을 선물로 준비하면 좋다.

다. 상담 시 유의 사항

미얀마인들은 대체로 빠르고 급한 일처리에 부담감을 느끼며 싫은 기색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편이다. 따라서 'No'라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며, 이는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인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미얀마와 한국 산업 발달 수준의 큰 격차로 인해 카탈로그만으로는 한국의 첨단 제품을 미얀마 바이어에게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품목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상담 시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미얀마 바이어는 상담 시 CIF YANGON 기준 가격표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미얀마 여성의 사회 활동이 왕성한 관계로 비즈니스 상담 시 여성들이 대화 상대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이들과 처음 대면 시에는 악수보다는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할 경우 이에 응하면 된다.

기업인, 특히 공기업 관계자 또는 정부 인사와 상담 시에는 정치 이야기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의 엄격한 사회 통제로 인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터부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밝고 부드러운 상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TV 드라마 '가을동화' 주인공 은서(송혜교), 준서(송승헌), 태석(원빈) 이야기를 꺼내면 좋다. 미얀마는 현재 한국 TV드라마로

축발된 한류 열풍이 사회 전체를 휩쓸고 있으며, TV를 볼 수 있는 여건의 미얀마 국민 전체가 한국 TV드라마를 시청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특히 ‘가을동화’는 한류를 촉발시킨 TV드라마 원조로써 미얀마 국민 모두가 이들 주인공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미얀마에서는 축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으로 한-일 월드컵,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 리그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상담을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라. 바이어와 교신 방법

미얀마의 전기 및 통신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정확한 전화, 팩스번호, e-메일 주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팩스의 경우, 전화팩스 겸용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팩스번호로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팩스로 전환시켜 달라고 얘기하고 팩스를 보내면 된다. 팩스로의 전환은 ‘팩스 푸인바(팩스 열어주세요)’ 또는 ‘팩스 보친데(팩스 보낼게요)’라고 표현하면 된다.

미얀마 기업인은 e-메일 교신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다. 전기 및 통신 사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복구되는 대로 바로 e-메일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어와의 교신 방법으로는 e-메일이 가장 좋으며, 팩스를 겸해서 사용하면 더욱 좋다.

마. 바이어 신용도 조회 방법

미얀마에는 신용 조회를 위한 현지 기관이 없다.

바.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1) 수입 관행

미얀마는 고질적인 외환 부족 문제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극도의 수입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만이 수입 가능하며, 수입 허가서 신청에서부터 실제 L/C 오픈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미얀마는 통상 국가 신인도가 매우 떨어지는 나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수출 보험도 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미얀마에서 정상 무역을 위한 외환 취급 은행은 정부가 운영하는 단 두 개 은행에 불과한데 이들은 MFTB(Myanmar Foreign Trade Bank)와 MICB(Myanmar Investment Commercial Bank)이다. 이들 은행에서 L/C를 발급받기 전에 수입 대금의 100%를 예치하고 외환 잔고 증명을 상무부에 제시해야만 I/L(수입허가)를 받고 L/C를 개설할 수 있으며, 승인된 외화는 다른 용도로는 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L/C 신뢰도는 매우 높다.

은행에 수입 대금을 100% 선 예치하는 금융 부담, 시장 환율보다 10~15% 가량 높은 Export Earning 구매 부담 및 자사 외환 흐름의 노출을 꺼려 많은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수입 대금의 일부만을 정부에 공식 신고하는 언더밸류가 일반화되어 있다. Export Earning이란 수출 대금을 의미하며, 미얀마에서는 수출 실적이 있어야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의 Export Earning을 구입(계좌이체)해서 수입 활동을 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수입 시 L/C거래만을 인정하며, T/T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언더밸류가 성행하고 있어 차액은 T/T, 혼디(환치기) 또는 인편에 직접 전달하는 경향이 높다. 아울러 미얀마 정부는 수입 허가 시 송장(invoice)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발급했던 수입 허가서에 기록된 동종 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한편 미얀마 정부의 수출입 관련 제도는 사전 공지 없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미얀마 수출입 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를 하는 외국 수출입 업체 또한 갑자기 바뀐 제도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2002년부터 미얀마 정부는 특별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외국계 무역회사의 신규 영업 허가 및 갱신을 중단하고, 수출입 허가서 발급을 중단하여 수많은 외국계 무역 회사가 자체 이름으로 수출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거래 시 유의 사항

미얀마 수입업자와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안심을 하기에는 이른다. 왜냐하면 미얀마 정부의 극도의 수입 억제 정책으로 도처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고 미얀마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조바심이 생겨 성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수출 실적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으로 인해 전문 수입상의 경우, 시장 환율보다 10~15% 비싸게 거래되는 Export Earning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물론 보다 상급 기관인 무역 협의회(Trade Council)의 승인을 얻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수출 업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

미얀마 정부는 수입 시 L/C 거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L/C 개설에 필요한 대금 100%를 은행에 먼저 예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제 조건에 따른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다. 다만 미얀마 L/C의 경우, 한국에서 선적 후 바로 협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성공적인 상담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미얀마의 열악한 전기 사정 및 통신 사정 때문에 전화, 팩스, e-메일이 자주 고장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회신이 없다고 해서 바이어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서둘러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연락에도 회신이 없다면 이때는 포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더라도 'No'라고 말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거래는 대부분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입찰을 따냈다 하더라도 정부가 돈이 없어서 실제 수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 대금 결제 시기에 대한 확인을 받아두어야 하며 수시로 결제 문제를 거론하여 결제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정부 인사와의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금 과장한다면 가격이나 품질 조건보다는 정부 인사와의 유대 관계가 미얀마 정부 관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도 있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수입 억제 정책

미얀마는 외환 부족을 이유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모든 품목에 대해서 건 별로 수입 허가(Import License)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다. 양곤에서 네빠도로 행정 부처가 이동하면서 수출입 허가 발급 업무도 네빠도에서만 가능, 수입 허가를 받는 데 최소 2주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품목에 따라서는 수입 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의약품이나 건강 보조 식품의 경우 미얀마 식약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나. 외국 무역 법인 불허

2002년부터 미얀마 정부는 외국 무역 법인의 신규 및 연장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당시 인도계 무역 법인이 불법 무역을 통해 외화를 밀반출했다는 것이 이런 조치의 이유이다. 이로 인해 현지 진출 무역 법인의 경우,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새로 설립하여 무역을 하고 있다. 법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채류 비자도 문제가 된다. 현재까지 정부 관련 부처(주로 거래 관계가 있는)의 추천서를 받아 비자를 연장해 오고 있으나, 이민국에서는 더 이상의 비자 연장은 불허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다. 금융상의 제한

현지 진출 시 현지에서 현지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거의 불가능하다. 1998년 이전에는 국내 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었으나 IMF 사태로 모두 철수한 상태이고 현지 은행을 통한 대출은 현지인과 합작 시 현지인 명의의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 외환의 경우, 2개 국영 은행(MFTB, MICB)에서 취급하고 있으나 대출은 하지 않는다. 과실 송금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은 되어 있으나 구비 서류가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실제로는 과실 송금일지라도 송금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 이중 가격제

미얀마에 진출한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 통신, 수도 및 기타 시설 이용 시 (국내 항공료, 병원 진료비, 골프장 그린피 등) 내국인과 달리 달러화로 징수함으로써 차별적인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5배에서 최고 70배 등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1) 진출 성공 사례1 - 미얀마 포스코

□ 미얀마 투자 개요

○ 경과

- 1993~97, 주재원 파견, 사업 타당성 검토 및 투자 준비
- 1997.1, 합작 사업 파트너 선정, 계약 체결

- 1997.10, 회사 설립 등록
- 1997.12, 공장 건립 착공
- 1998.12, 공장 건립 완공
- 1999.1, 공장 가동
- 2005.6, 공장 가동 중단
- 2006.6, 공장 가동 재개
- 2008.9, 사상 최대 흑자 실현

○ 사업 개요

- 제품: 아연도금 골판 및 평판(지붕재, 연간 3만 톤)
- 종업원: 124명(2007년)
- 합작선: UMEHL(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
- 지분: 포스코 70%, 합작선 30%
- 투자비: 530만 달러(자본금 전액 포스코 투자, 합작선 부지 제공)

최근 경영 실적

구 분	2003	2006~2007.2	2007.3~12	2008.1~7
매출액(천 달러)	10,109	휴업	8,631	11,746
순이익(천 달러)	2,807	-1,486	52	1,444
총자산(천 달러)	9,681	5,320	9,400	9,855

자료: 미얀마 포스코

□ 미얀마 투자 초기 성과와 가동 중단

○ 초기 투자 성과(1999~2004)

- 포스코는 가동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3년간 가동으로 투자 자본금을 넘는 누계 순이익을 달성하였다. 이는 동종업계 선발 주자인 일본계 3개 업체를 추월한 실적이며 현지의 유력 파트너 선정(UMEHL)을 통한 원활한 소재 수입 여건, 경쟁사 대비 품질 우위, 적극적 판매망 관리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미얀마 정부, 국영 기업, 기업체 등 주요 인사를 지속적으로 한국체에 초청하여 포스코를 견학하게 하여 미얀마 주요 인사들의 친한국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 조업 중단 및 재개(2005~2006)

- 이러한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산 지붕재에 대한 규격 규제가 강화된 반면, 2004년부터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 저가의 밀수품이 대량 유입되면서 미얀마 내에서 생산된 지붕재가 수입산 대비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도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포스코를 포함한 미얀마 내 지붕재 생산 업체가 조업을 단속 또는 중단하게 되었으며 밀수품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 최고 실권자인 Than Shwe 장군에게 퇴직 인력의 구제 필요성 및 미래 미얀마 철강 산업에서의 포스코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밀수품의 폐해 및 단속을 직접 요청하여 조업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광고 활동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미얀마 국내 시장 장악

○ TV 광고 활동

- 포스코는 지붕재 판매망이 전국에 산재하는 데 따른 판매망 관리의 한계를 감안하여

조업 중단에 따른 포스코 브랜드를 재구축하기 위해 TV 광고를 시행하였다. 양곤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경우 가구당 TV 보유율이 높은 편이며 농촌 지역의 경우도 대개 1개 마을당 1개 가구 이상이 TV를 보유하고 있다. 미얀마 TV 광고 시 제작비는 3,000~4,000달러, TV 방영료 월 4,000~5,000달러로 연간 방영 시 7만 달러 내외가 소요되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미얀마의 국민적인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 방영 시간대에 광고 방송을 시행함으로써 친밀감과 고급화 이미지 정착에 노력했다.

○ TV 광고 효과와 브랜드 이미지

- 광고 최초 방영 시점(2007.11월)부터 전국 각지의 최종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 및 문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중소도시 및 대도시 도매상 순으로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붕재의 경우 종전에는 최종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전무하여 도매상의 경우, 2~3가지 제품을 동시에 배열, 판매하는 수준이었으나 포스코 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브랜드 이미지가 정착되면서 포스코 제품을 찾는 최종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도매상들로부터의 주문이 폭증하였다.
- 최근 경쟁사들의 TV 광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나 선발 효과 및 한국, 포스코 이미지가 이미 확고히 구축된 상황에서 경쟁 우위를 지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업 중단 전 미얀마 시장 점유율 10%에서 현재 20%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 단일 업체로서는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2~3년 이내에 시장 점유율 2배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포스코 해외 투자자 중 매출액 대비 순이익율 최고(12%)를 달성하였다.
- 포스코는 2008년 5월의 사이클론 발생시 지붕재 품귀 및 가격 급등 현상에도 불구하고 사이클론 발생 이전 가격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복구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여 일반 국민 및 정부의 신뢰를 얻고 있다.

□ 애로 사항-외환 관련

포스코는 현재 미얀마 내수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을 위한 외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외환 부족으로 일단 수출 활동으로 확보한 외화 범위 내에서 수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과실 송금의 경우도 정부의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진출 성공 사례2 - 미얀마 대우 목재법인

미얀마 대우 목재법인은 목재 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에서 미얀마 정부 기관인 Myanmar Timber Enterprise(MTE, 지분율 45%)가 원자재인 원목을 공급하고 합판 생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인 삼익(지분율 10%)이 생산을 책임지며, 경영 및 투자재원 마련을 책임진 대우(지분율 45%) 등 3자간의 합작으로 1992년 설립되었다. 합작법인 운영 기간은 20년으로 장기 운영 기반도 확보하였다.

기존 MTE가 운영하던 공장 중 양곤에서 약 320킬로미터 떨어진 스와(Swa)라는 지방 소도시의 제3공장을 인수, 개조하여 운영하였으며, 인수 전 연간 2,000CBM, 공장 종업원 363명에서 인수 후 첫해인 92년 6,900CMB 생산, 공장 종업원 589명으로 늘어났다. 2004년 말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은 50,000CBM, 매출액 약 1,200만 달러로 발전하였다.

미얀마의 대표적인 합작 기업이자 수출 기업으로 생산량의 85%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수출은 약 7,000만 달러에 이른다. 현재 생산품은 한국, 영국, 인디아,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며, 세계 최상품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3) 무역 성공 사례 (자동차 부품)

2001년 미얀마 시장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중소 무역 업체인 A사는 미얀마의 엄격한 수입 허가 제도 하에서도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미얀마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미얀마에서 가장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관계자조차 놀라는 실적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단한 성공이다.

A사는 2000년 설립된 무역 회사로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자동차 부품 및 건설 중장비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국내 전문 전시회 및 해외 전시회에도 꾸준히 참가하면서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동사가 미얀마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출 초기부터 제품 특화에 주력했다는 점이다. 미얀마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90% 이상이 일제 자동차이다. 1998년부터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자동차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모성 부품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근거로 바이어 맞춤형 일제 중고차용 부품 수출을 타깃으로 설정한 것이다. 바이어의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제품을 개발한 것도 성공 요인이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업자를 통하거나 미리 정착한 우리나라 교민을 통해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동산 신문 또는 전세 안내 등 별도의 책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는 금지되어 있고 임차만이 가능한데 임차 계약은 주로 1년 조건이며, 1년치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별도 보증금이나 부동산 수수료 등은 없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집주인만 한 달 치 집세를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며 임차인은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상사 주재원 또는 지사원으로 파견 근무 시 계약을 1년 단위로 정하고 연 선불로 임차료를 지불하였다가 불시에 본사의 명령에 의해 귀국해야 하는 경우,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계약 조항에 "본사의 명령에 의해 귀국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은 일반 단독주택, 아파트, 서비스 아파트 등이 있으며 주재국의 열악한 전기 사정 때문에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서비스 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서비스 아파트의 경우, 3베드룸 기준 1,500~3,000달러 수준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3베드룸 기준 300~400달러 수준이다. 단독주택은 전기 사정, 시설,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며 500~2,000달러 수준이다.

가구는 집주인과 상의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으며, 서비스 아파트는 모든 가구 및 전기 전자제품이 기본적으로 구비되어 있다.

나. 식품

한국 식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는 없으며, 양곤 최대 슈퍼마켓 체인점인 City Mart에서 대상 청정원 제품을 일부 구입할 수 있다. 고추장, 된장, 간장, 소면, 당면, 카레, 케첩, 마요네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나 공급 물량에 비해 수요가 높아 품절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기타 고기류, 야채, 과일 등은 슈퍼마켓, 재래 시장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다. 교육

미국 국무부에서 직영하는 ISY(International School Yangon)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갖추고 있으며 1년은 2학기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 시 신청 비용 100달러, 등록금 1,000달러, 기부금 4,000달러가 소요되며 수업료는 유치원 기준 연간 약 3,000달러, 고등학생 기준 연간 약 10,000달러 정도 소요된다. 대부분의 주재원 및 교민 자녀는 ISY에 다닌다.

ISY 이외에 Diplomatic School, YIEC 등이 있으며 이들 학교의 학비는 ISY보다 훨씬 저렴하다. 한인 학교는 매주 토요일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있으나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다.

라. 교통, 통신

일반 대중 교통 수단은 매우 열악하며, 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해서 사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통신 수단 역시 매우 열악해서 한국 개념의 공중전화는 없으며, 번호가 및 버스 정류장 등에 일반 전화기 2-3대를 갖춘 간이 테이블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전화 사용 시간에 따라 요금을 청구한다. 시내 전화 1분에 50파트 정도이다. 일반 전화는 라인 수가 적어 자주 통화가 끊기는 경향이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개설했는지 수 개월이 소요된다. 따라서 집을 구할 때 전화가 이미 개설된 집인지를 확인하고 입주해야 한다. 요금은 1개 라인 개설에 2,000달러 정도 소요되며, CDMA, GSM 등 핸드폰 역시 2,000달러 이상 소요된다. 핸드폰 브로커를 통해 임차도 가능하며 월 임차료는 60달러 수준이다.

마. 자동차

미얀마는 신차, 중고차 모두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0년 된 2,000CC 급 일본 토요타 자동차가 2만 달러 이상에 거래된다. 대중 교통 수단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필수품이며 구입 또는 임차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 교민 또는 중고차 브로커를 통해 구입 가능하며 원활한 부품 조달을 위해서는 일제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도로 조건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차량 우측 통행이지만 일본에서 수입한 오른쪽 핸들 중고차가 많아 운전 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 사정이 나빠서 밤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며 양곤 주요 도로조차도 도로 표면이 고르지 못하고 아무 곳에서나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해야 한다.

한국 운전 면허증 또는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미얀마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30달러 정도 소요된다.

바. 은행

미얀마 은행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다. 달러화 구좌는 국영 은행인 미얀마 무역은행(Myanmar Foreign Trade Bank: MFTB)과 미얀마 투자상업은행(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 MICB)에서만 개설할 수 있고, 달러화 인출 시 미얀마에서 달러 대용 화폐로 사용하는 FEC(Foreign Exchange Certificate)로만 찾을 수 있다. 현지 은행의 경우, 달러화를 취급할 수 없고, 국영은행, 현지은행 모두 환전 기능이 없으며 로컬 신용카드 또한 사용할 수 없어 내수 판매를 하거나 거액을 취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현지화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

사. 문화 시설

미얀마는 1인당 국민 소득 436달러 수준(2007년 EIU 추정치)의 세계 최빈 개발 도상국으로 문화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수영(주로 호텔 수영장), 테니스, 탁구, 조깅, 골프 등이며, 볼링장도 양곤 시내에 2개가 있으나 한국 대비 설비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골프장의 경우, 양곤 시내 및 인근에 8개의 골프장이 있으나, 편홀라잉 골프장을 제외하면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시내 영화관이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최신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공연하는 곳은 전무하며, 현대적 수준의 백화점(쇼핑센터)도 거의 없어 쇼핑을 즐기기도 마땅치 않다.

아. 병원

편홀라잉, 쉐공다인, 아시아로알, 사쿠라 등 병원과 SOS, 퍼시픽 등 클리닉이 있지만 한국 대비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기본적인 치료는 가능하나, 외국인들의 경우, 심각한 질환 내지는 수술이 필요한 때에는 인근지 방콕 또는 싱가포르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자. 전자 제품

한국은 220V/60Hz인데 미얀마는 220V/50Hz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현지에 가져와 사용하는 데 별 문제는 없다. 다만 정전이 잦고, 전압이 일정하지 않아서 컴퓨터는 UPS를, 기타 가전제품은 세이프가드(전압안정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1) 기후 특성

국토의 종단 길이는 2,040km로 열대, 아열대 기후대에 위치해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고온 다습한 열대성 몬순기후이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27.4로 낮 기온은 연중 30도 이상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2,500mm에 달한다. 미얀마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건기는 10월 중순에서 다음해 5월 말까지이며 우기는 6월초에서 10월 초순까지로,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우기에는 거의 매일 5시간 정도 비가 내린다. 건기 중 가장 시원한 계절인 11~2월의 4개월 간의 새벽 최저 기온이 15도 까지 내려가나, 가장 더운 계절인 3~5월 기간 중 낮 최고 기온은 40도 이상 올라간다.

2) 출장 시 추천 복장

우리나라 여름철에 입는 복장을 입고오면 된다. 정부 인사를 방문할 때 또는 행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여름 양복 정장을 입으면 좋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셔츠에 양복 바지 차림으로 활동하면 된다.

출장 시에는 여름용 셔츠, 바지, 양복 정장 1벌을 준비하도록 한다. 시내 관광을 위해 파고다를 방문할 때는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어야 한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미얀마는 한국보다 2시간 30분이 늦다. 한국의 12시는 현지의 9시30분이다. 서머타임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2) 근무 시간

관공서 근무 시간은 9:30~16:30이며 별도의 점심 시간은 없고, 토, 일요일은 휴무한다. 외환을 취급하는 국영은행 역시 근무 시간은 일반 관공서와 같으나 입출금은 10:00~14:00만 가능하다. 따라서 오전 일찍 업무 개시와 더불어 은행 입출금을 신청해야 당일 마칠 수 있다.

일반 직장의 근무 시간은 8:30~17:30이 일반적이다. 관공서와는 달리 토요일 오전 또는 전일 근무를 한다. 상점들의 개폐 시간은 일반적으로 9:00~19:00이 많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찍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만 시티마트 등 대형슈퍼마켓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한다.

다. 도량형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관계로 영국식 도량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인치, 야드, 마일, 파운드 등을 사용한다. 또한 인도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비스, 티클 등의 무게 단위가 재래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종류	단위	한국형 환산	비고
길이	1 인치	2.54 Cm	
	1 피트	30.48 Cm	
	1 야드	91.438 Cm	
	1 마일	1.609 Km	
무게	1 온스	0.02835 Kg	
	1 파운드	0.45359 Kg	
	1 비스(Viss)	1.633 Kg	
	1 티클(Tickle)	0.01633 Kg	100 티클 = 1 비스
넓이	1 에이커	4,046 m2	

라. 출입국/비자

1) 비자

□ 비자 관련 일반사항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방문객은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내 미얀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즈니스 비자는 한번 체류 시 10주 유효하며, 관광 비자는 4주 유효하다. 무비자 입국 후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즈니스 비자는 취득 후 3개월, 관광 비자는 취득 후 1개월 내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화된다.

□ 비자 발급

비자는 미얀마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으며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 3매가 필요하며 비즈니스 비자에 한해서 출장 증명서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비자를 받을 경우 방콕, 팔라렐푸르, 홍콩 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 받는 것이 가장 편하며 2~3일 정도 소요된다.

□ 주한 미얀마 대사관 연락처 및 소요비용

- 발급처: 주한 미얀마 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4-1
 - 전화: 790-3814~6 / 팩스: 790-3817
 - 비자신청시간: 09:00 ~ 11:30
 - 소요시간: 비즈니스비자, 관광비자 모두 2일
 - 소요비용: 비즈니스비자 40,000원, 관광비자 25,000원
- 준비서류
 - 관광비자: 여권, 비자신청서, 사진 3매
 - 비즈니스비자: 여권, 비자신청서, 사진 3매, 출장증명서(Travel Order)

2) 입출국 절차

□ 미얀마 입국절차

입국장에 들어서면 외국인, 외교관, 자국민 등으로 구분된 입국심사 창구를 볼 수 있다. 외국인 창구에 여권과 기내에서 작성한 출입국 카드를 제출한 후 조회가 끝나면 입국심사 창구를 통과한다. 입국심사가 끝난 후 짐을 찾고 나서 세관검사 창구에 여권과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며, 짐이 많은 경우가 아니면 짐을 일일이 검색하는 경우는 드물다. 세관 검사 창구는 그린 채널과 레드 채널로 구분되며, 보석류, 전자제품, 카메라 등 특별히 세관에 신고할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린 채널을 이용한다. 단, 비행기에서 내린 짐을 입국장 수화물 픽업 장소로 보내기에 앞서 엑스레이 검사를 하며 이때 세관원 직접 조사가 필요한 짐에 대해서는 하얀 분필로 X표시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세관 검사 창구 직원은 X표시가 된 짐을 모두 열어보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미얀마의 경우, 달러 등 외화 소지 및 사용에 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여 입국 시 보유 외화가 US\$2,000 이상일 경우 세관 신고서에 보유 금액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고 출국 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미얀마 체재 중 불법 외환 거래가 없음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유 외화를 신고할 경우, 세관 검사원 앞에서 일일이 돈을 세어보는 등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외화소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면세품 보유 한도는 주류 1리터, 담배 200개피, 향수 0.5리터 등이다.

□ 미얀마 출국 절차

출국 시에는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하며 이때 공항세 US\$10을 납부해야 한다. 이어서 출국 심사 창구에 여권, 탑승권(보딩 패스), 출국 카드를 제시하고 출국 심사를 받는다. 미얀마에서의 체류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에는 비자 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라도 출국 시 D-Form(Departure Form)을 기재한 후 제출해야 하며 동 D-Form 양식은 체류 중인 도시의 이민국(Immigration Office)에서 구할 수 있다.

3) 공항-시내 교통편

미얀마는 대중 교통 수단이 매우 열악하며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편은 택시가 유일하다. 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오면 택시 서비스 데스크를 찾을 수 있으며, 이곳을 통해 택시 이용이 가능하다. 양곤 시내까지 5-6달러 정도이다. 아울러 체류 호텔의 공항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편도 기준 15달러 정도이다.

마. 환전

1) 통화

미얀마 화폐단위는 짜트(Kyat)로서 약칭은 K 또는 Kt이다. 1, 5, 10, 20, 50, 100, 200, 500, 1000짜트가 통용되고 있는데 여행객들에게는 500짜트 내지 1000짜트 지폐 사용이 상식적이다. 현재의 환율을 보면 1000짜트 지폐를 우리나라의 1000원권 정도로 보면 된다.



2) 환전/환율

미얀마는 만성적인 외환 부족으로 금융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었기 때문에 공식 환율, 공정 환율, 시장 환율 등 3가지 환율이 있을 정도로 환율 시스템이 왜곡되어 있다. 정부 공식 환율(US\$1=약 Kt6)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정부가 현실과 타협하여 정부지정 환전소에서 운용하는 공정 환율은 US\$1=Kt450이다. 미얀마 일상 생활에서 실제 사용되는 환율은 시장 환율로 최근 1년간 US\$1은 Kt1000~1,200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유가 인상, 공무원 임금 인상 조치 등으로 환율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9월 기준, 환율은 1달러 당 약 1,050Kt 정도이다.

현재 정부 은행인 MFTB 및 MICB를 제외한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외화를 취급하지 못하고 MFTB 및 MICB는 외화를 취급하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한 환전 기능이 없으며, 호텔에서조차 환전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정부에서 묵인한 환전상이 외환취급 은행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시중 환전상은 여행사나 호텔 등에서 소개받을 경우 안전하며, 미얀마에서는 여행자 수표 및 신용카드가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행 경비에 해당하는 달러화 현금을 반드시 소지할 필요가 있다.

3) 신용카드 사용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어렵다. 특급 호텔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4% 이상 추가로 붙으며, 사용 가능한 카드가 제한되어 있다. 특급 호텔 이외의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

바. 교통/통신

1) 한국에서 미얀마로의 입국 교통편

우리나라와의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방콕에서 환승을 해야 한다. 방콕에서 타이 항공, 방콕 에어, 미얀마 항공 등의 노선으로 갈아타면 양곤 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당일 미얀마에 도착하려면 인천-방콕-양곤 구간을 모두 타이 항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특별히 싸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울러 홍콩, 싱가포르, 팔라렘푸르, 타이페이 등을 경유할 수도 있으나 운항 편수가 많지 않아 불편하다.

취항 항공사 리스트

항공사	주소	전화/팩스	목적지
Bangkok Airways (PG)	#0305, 3 rd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255122,255265 Fax:255199	Bangkok
Malaysia Airlines (MH)	335/357, Bo Gyoke Aung San Road, Pabedan Township, Yangon	Tel:241007(Ext:703~6) Fax:241124	Kuala Lumpur
Mandarin Airlines (AE)	353/355, Bo Aung Kyaw Road, Kyau ktada Township, Yangon	Tel:245484,240399 Fax:246330	Taipei
Myanmar Airways International(8M)	#0802, 8 th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255440,252260 Fax:255434	Malaysia Singapore Bangkok

Silk Air (MI)	#0202, 2 nd Floor,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255287,255288 Fax:255290	Singapore
Thai Airways International (TG)	#1101, Sakura Tower, Bo Gyoke Aung San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255499 Fax:255490	Bangkok
Air Mandalay(6T)	#146, Dhamazedi Road, Bahan Town ship, Yangon.	Tel:501520, 525488 (HeadOffice), 720309, 652753, 652754 (Airport) Fax: 525937	Chiang Mai
Indian Airlines Limited (IC)	#127, Sule Pagoda Road, Kyauktada Township, Yangon.	Tel: 253598 Fax: 248175	Calcutta
Air Bagan (W9)	#56, Shwe Taung Kyar St., Bahan T/S, Yangon.	Tel: 514861, 504888 Fax: 538283	Bangkok
Air China(CA)	#13, 23 B, Nar Nat Taw St., Shwe Kainnaya Housing Kamayut T/S, Yangon.	Tel: 500952, 500024 Fax : 505023	Kunming
Thai Air Asia(FD)	#33, G-Floor, Park Royal Hotel, Alan Pya Phaya Pagoda Road, Dagon Town ship, Yangon.	Tel: 251885~6 Fax: 251882	Bangkok

2) 시내 및 국내교통

외국인이 이용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은 택시가 유일하다. 택시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미터기가 없어 승차 전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 요금은 공항에서 양곤 시내까지 5~6달러 정도이며 대부분 지역을 3달러 선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호텔 예약 시 호텔차량으로 공항 픽업을 요구하면 호텔에서 공항까지 마중 나오며 15달러 정도의 요금이 청구된다.

버스는 값이 싸지만 복잡하고 불결해 외국인이 이용하기가 어렵다. 버스는 픽업 개조형과 버스형이 있으며, 구간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대략 한국 기준 100원에서 300원 정도면 이용 가능하다. 픽업 개조형의 경우, 손님이 많을 때 남자들이 차량 뒤에 매달린 채 운행한다.

미얀마에서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이 빨간색이며, 일반 자가용은 검정색, 외교관 차량은 하얀색 번호판이다. 렌트카는 양곤 시내에서 1일 사용할 경우 운전기사, 기름값 포함 승용차 \$60, 승합차 \$70선이다. 바간, 나팔리, 만달레이, 인레레이크 등 국내 여행 시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양곤 기준 왕복운임은 130달러에서 200달러 수준이다.

3) 국제/국내전화

미얀마는 통신시설이 매우 열악해 국제 전화료가 매우 비싸다. 현재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 1분 기준 3달러 정도 청구되며, 호텔에서는 약 5달러 정도 나온다. 요금 지불은 현지화가 아닌 달러로 납부하게 된다.

한국에서 미얀마로 전화할 때는 전화선이 적은 현지 실정을 감안, 이른 새벽이나 밤늦게 통화하는 것이 좋으며 “001(국제전화 코드)-95(미얀마 국가 코드)-1(양곤지역 코드)-전화번호”순서로 IDD 사용이 가능하다. 미얀마에는 수신자 부담 통화 (Collect Call) 방식은 없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경우에는 “00(국제전화 코드)-82(한국국가코드)-2(서울지역코드)-전화번호”순서로 다이얼을 누르면 된다.

국내 전화의 경우, 양곤 시내에서 한국식 공중전화 부스는 찾아볼 수 없으며, 일반가정용 전화를 거리에 설치, 시내 전화의 경우 일반 로컬 가정용 전화 요금과 비슷한 수준인 1분당 30Ks(0.03달러)를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내 통화로 역시 달러화로 납부하며, 분당 0.2 달러 정도된다. 핸드폰은 0999, 0980, 0950, 0951 등을 누른 후 나머지 5자리 숫자를 누르게 되는데 회선 부족으로 인해 전화가 제대로 걸리지 않을 때가 많고, 대부분의 휴대 전화가 양곤 시내 외곽 지대로 가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CDMA와 GSM 방식이 혼용되고 있다.

4) 국제/국내소포

미얀마의 우체국 시스템은 매우 열악해서 물건을 찾거나 보낼 때는 직접 우체국까지 가야 한다. 한국에서 미얀마로 소포를 보낼 때는 우체국 EMS서비스 또는 DHL 이용 가능하며, 보다 저렴한 EMS서비스가 무난하다.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소포를 보낼 때도 역시 EMS 또는 DHL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소포의 경우, 미얀마 우체국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에 버스 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며, 양곤 시내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쿠리어 서비스를 이용한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 Traders Hotel

- 위치: Shangri-La 그룹의 체인호텔로써 양곤 최종심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무역관이 있는 Sakura Tower 빌딩 길 건너편에 위치함.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상담을 위해 미얀마에 오는 비즈니스맨에게는 가장 편리한 호텔이며 주변에 보조마켓(Bogyoke Market) 등 쇼핑 시설, 차이나타운, 술래파고다(Sule Pagoda), 양곤시청 등이 있다.
 - 양곤 공항에서 승용차로 30-40분 소요
 - 한국인 매니저(이은영)가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객실 요금 (Deluxe Room기준/조식 및 세금, 봉사료 포함)
 - KOTRA 할인요금: 싱글 US\$65, 트윈 US\$75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객실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며, 비즈니스센터에서 사용 가능
 - 처음 30분간은 US\$2이며 추가적으로 10분당 US\$1의 요금이 부과됨.
- 각종 부대시설
 - 양식당, 일식당, 중식당이 있으며 수영장, Gym, 사우나 등의 피트니스시설 구비
 - 회의실 사용가능 룸은 3개로서 이 중 볼룸은 742평방미터의 크기임.
- 연락처
 - 주소: No.223, Sule Pagoda Road, Yangon, Myanmar
 - 전화: 95-1-242828 / 팩스: 95-1-242834
 - E-메일: businesscentre@tradersyangon.com.mm
 - 웹사이트: <http://www.shangri-la.com/yangon/traders/en/index.aspx>

□ Sedona Hotel

- 위치: 1996년에 건립된 5성급 호텔로써 객실수준 및 부대시설이 우수함. 공항으로 부터 6Km, 도심으로부터 3.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수(Inya Lake)가 인접해 있어 경관이 빼어남.
 - 양곤 공항에서 승용차로 25분 소요, 도심에서 15분 소요
- 객실 요금 (Deluxe Room기준/조식 및 세금, 봉사료 포함)
 - KOTRA 할인요금: 싱글 US\$60, 트윈 US\$60
- 인터넷 사용여건 안내
 - 객실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며, 비즈니스센터에서 사용 가능
 - 처음 15분간은 US\$5이며 추가적으로 1분당 US\$0.25의 요금이 부과됨.
- 각종 부대시설
 - 양식당, 중식당, 이태리식당 등이 있으며 수영장, Gym, 테니스코트가 구비되어 있음.
 - 회의장으로는 볼룸(748평방미터), 민돈 룸(301평방미터)이 사용 가능함.
- 연락처
 - 주소: No.1, Kaba Aye Pagoda Road, Yangon, Myanmar
 - 전화: 95-1-666900, 팩스: 95-1-666911
 - E-메일: sales@sedona.com.mm
 - 웹사이트: <http://www.sedonasmyanmar.com>

□ Dusit Inya Lake Hotel

- 위치: 1962년 건립 후 1995년 개축되었으며 호수(Inya Lake)를 바로 접하고 있어 자연 경관이 매우 뛰어남. 양곤 공항과 도심의 중간 위치에 있음. 자연미를 좋아하는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호텔이지만 객실이나 부대 시설이 약간 뒤떨어진 점은 고려해야 함.
 - 양곤 공항에서 승용차로 20분 소요, 도심에서 20분 소요
- 객실 요금(Deluxe Room기준/조식 및 세금, 봉사료 포함)
 - KOTRA 할인요금: 싱글 US\$40, 트윈 US\$45
- 인터넷 사용 여건 안내
 - 객실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며,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용 가능
 - 30분당 US\$1의 요금이 부과됨.
- 각종 부대 시설
 - 양식당 및 라운지가 있으며, 수영장, Gym, 사우나 시설, 테니스 코트가 구비되어 있음.
 - 회의장으로 볼룸(544평방미터), 루비룸(194평방미터), 엘리펀트룸(79평방미터) 사용 가능
- 연락처
 - 주소: No.37, Kaba Aye Pagoda Road, Yangon, Myanmar
 - 전화: 95-1-662866, 팩스: 95-1-665537
 - e-메일: inyalake@dusit.com
 - 웹사이트: <http://www.dusit.com>

□ Chatrium(구 Nikko Royal Lake) Hotel

- 위치: 1998년에 오픈 한 현대식 호텔로써 주변에 관도지 호수가 있어 한적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하며 일본 투숙객이 많은 편임.
- 양곤 공항에서 승용차로 30분 소요, 도심에서 10분 소요
- 객실 요금(Superior Room기준/조식 및 세금, 봉사료 포함)
 - KOTRA 할인요금: 싱글 US\$55, 트윈 US\$65
- 인터넷 사용 여건 안내
 - 객실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며,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용 가능
 - 30분당 US\$2의 요금이 부과됨.
- 각종 부대 시설
 - 양식당, 중식당, 일식당이 있으며 수영장, Gym,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음. 지하에는 가라오케 바가 운영되고 있음
 - 회의장으로는 볼룸(435평방미터)이외에 20~50평방미터 규모의 6개 룸이 사용 가능함.
- 연락처
 - 주소: No.40, Natmauk Road, Yangon, Myanmar
 - 전화: 95-1-544500, 팩스: 95-1-544400
 - e-메일: chatrium@chatriumyangon.com.mm
 - 웹사이트: <http://www.chatrium.com>

□ Grand Plaza Park Royal Hotel

- 위치: 양곤 도심지에 소재, 트레이더스 호텔이나 무역관과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음.
- 양곤 공항에서 승용차로 30~40분 소요
- 객실 요금 (Deluxe Room기준/조식 및 세금, 봉사료 포함)
 - KOTRA 할인 요금: 싱글 US\$55, 트윈 US\$60
- 인터넷 사용 여건 안내
 - 객실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하며, 비즈니스 센터에서 사용 가능
 - 1시간당 US\$2의 요금이 부과됨.
- 각종 부대 시설
 - 양식당, 중식당, 일식당이 있으며 수영장, Gym, 사우나 시설, 테니스 코트를 갖추고 있음. 지하에는 나이트 클럽이 운영되고 있음.
 - 회의장으로는 볼룸(426평방미터)이외에 80~100평방미터 규모의 2개 룸 사용 가능함.
- 연락처
 - 주소: No.33, Alan Pya Pagoda Road, Yangon, Myanmar
 - 전화: 95-1-250388, 팩스: 95-1-252478
 - e-메일: enquiry@parkroyalhotels.com.mm
 - 웹사이트: <http://yangon.parkroyalhotels.com>

2) 식당

□ Le Planteur(르 플랜트)

- 위치: No.16 Sawmaha Street, Bahan, Yangon
- 주요 메뉴: 스테이크 종류와 각종 프랑스요리(서양식)
- 가격대: 앙트레, 메인, 디저트 포함 시 1인당 US\$70선
- 연락처: 95-1-549389
- 특기 사항: 정통 프랑스식 식당으로 분위기 있는 고급 식당이나 가격이 다소 비쌘. 건기에는 정원에 마련된 식탁에서 남국의 정취를 느끼며 포도주를 즐길 수 있음.

□ L'Opera(로페라)

- 위치: No.20, Thu Kha Waddy Road, Yangon
- 주요 메뉴: 스테이크 종류와 각종 이탈리아 요리(서양식)
- 가격대: 앙트레, 메인, 디저트 포함 시 1인당 US\$50선
- 연락처: 95-1-566662
- 특기사항: 정통 이탈리아 식당으로, 스파게티나 피자를 싼 가격으로 즐길 수 있음. 건기 중 밤에는 정원에 식탁을 마련하여, 클래식 연주 속에 식사 가능.

□ Royal Garden

- 위치: Natmauk Road, Yangon (간도지 호수가에 위치)
- 주요 메뉴: 각종 중국요리(중국식)
- 가격대: 고기요리, 해산물, 채소 요리 등 6-7가지 요리를 주문할 경우 1인당 US\$ 20 ~30 수준
- 연락처: 95-1-546923, 546202
- 특기사항: 간도지 호수가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경관이 수려함. 요리 수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현지에서 인기 있는 레스토랑임. 담성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음.

□ Golden Kitchen(구 Adorn's Kitchen)

- 위치: The Grand Mee Ya Hta Residence 1층에 소재(양곤 도심)
- 주요 메뉴: 각종 중국요리(중국식)
- 가격대: 수프, 고기 요리, 해산물, 채소 요리 등 6-7가지 요리를 주문할 경우 1인당 US\$ 20~30 수준
- 연락처: 95-1-385101, 256355
- 특기 사항: Baby Lobster, Garupa(우럭과 비슷한 생선) 등의 생선회를 즐길 수 있으며 개별 룸이 많아 조용한 접대에 알맞다.

□ Fook Mun Lau(복만루)

- 위치: No.102, Nawaday Cinema Garden, Kaba Aye Pagoda Road, Yangon
- 주요메뉴: 각종 중국요리(중국식)
- 가격대: 수프, 고기 요리, 해산물, 채소 요리 등 6-7가지 요리를 주문할 경우 1인당 US\$ 30~40 수준
- 연락처: 95-1-663743, 661397
- 특기사항: 최근 오픈한 중국식당으로서 음식수준, 규모 및 시설 면에서 가장 우수한 식당으로 판단되며, 개별 룸이 많아 조용한 상담이나 접대에 편리하다.

□ Shikitei

- 위치: Grand Plaza Park Royal 호텔 2층에 소재
- 주요메뉴: 스시, 사시미 등 일본요리(일식)
- 가격대: 스시, 사시미, 튀김 등 코스로 할 경우 1인당 US\$ 30-40 수준
- 연락처: 95-1-250388
- 특기사항: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의 경우, 일식 뷔페는 US\$ 20 수준

□ Benkay

- 위치: Nikko Royal Lake 호텔 1층에 소재
- 주요메뉴: 스시, 사시미 등 일본요리(일식)
- 가격대: 스시, 사시미, 튀김 등 코스로 할 경우 1인당 US\$ 40-60 수준
- 연락처: 95-1-544500
- 특기사항: 분위기가 고급스럽고 정통 일본 요리를 즐길 수 있으나 가격이 다소 높은 편임. 일요일 저녁 일식 뷔페는 US\$ 30 수준

□ Sandy's

- 위치: Kandawgyi Palace 호텔 Lake View Side에 소재
- 주요 메뉴: 외국인 입맛에 맞춘 미얀마 요리
- 가격대: 다양한 미얀마요리를 즐길 경우에 1인당 US\$ 10~20 수준
- 연락처: 전화: 95-1-382918
- 특기 사항: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미얀마 식당. 칸도지 호수를 바라보면서 식사할 수 있음.

□ 한국식당(가나다 순)

식당명	주소/전화번호	대표자
고려성(중식)	No.3 Nagaryone Pagoda St., 5 Quarter, Mayagone T/S(95-1-651971)	서준석
서울	Traders Hotel내 위치 (95-1-242828)	김홍태
아리랑	No.19, 7 Mile, Pyay Road, Mayangon T/S, Yangon(95-1-660817)	이태곤
하나로	48, Parami Road, Yangon(95-1-660895)	한영자
한국관	24B, Pyithu Lane 7 Mile, Pyay Road, Yangon(95-1-662757)	이동욱
한일관	No.33, 6 1/2Mile, Pyay Road, Yangon(95-1-513842, 534986)	김원우

아. 관공서 관행

관공서 공무원들은 대부분 과거 사회주의 체제 잔재로 서비스 정신이 다소 결여되어 있으며, 거의 수작업으로 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정부 은행의 경우 수작업 및 결재 라인의 과다로 현금 인출을 위해서는 오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오후에 인출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월급 수준이 낮아 뇌물이 상례화되어 있으며, 수입허가서 1건을 발급받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원 발생시 거의 모든 절차를 서류로 하며, 하급 공무원에 대한 위임 전결권이 거의 없어 대부분 사안이 고위층의 결재를 요구하는 바 행정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정부 부처간 행정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자. 공휴일

1) 2009년도 공휴일

- 1월 04일(일)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 2월 12일(목) 국가연합기념일(Union Day)
- 3월 02일(월) 농민의 날(Peasants' Day)
- 3월 10일(화) Full Moon Day of Tabaung
- 3월 27일(금) 국군의 날(Armed Forces Day)
- 4월 12일(일)~21일(화) 미얀마 물축제(Thingyan Water Festival) 및 신년휴일
- 4월 17일(금) 미얀마 신년(Myanmar New Year Day)
- 5월 01일(금) 노동절(May Day)
- 5월 08일(금) Full Moon Day of Kasone
- 7월 06일(월) Full Moon Day of Waso
- 7월 19일(일) 순교자의 날(Martyrs' Day)
- 10월 3일(토) Full Moon Day of Thadingyut
- 11월 1일(일) Full Moon Day of Tasaungmone
- 11월 11일(수) National Day
- 12월 16일(수) Kayin New Year Day
- 12월 25일(금) 성탄절(Christmas Day)

2) 주요 축제일 및 출장 지양 기간

Thingyan Water Festival(물 축제)이 있는 4월 셋째 주는 피하는 것이 좋다. 관공서, 기업, 은행, 상점이 모두 문을 닫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물을 뿌리며 축제를 즐기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 축제 기간은 미얀마 최대의 연휴 기간이며 동시에 미얀마 송년, 신년 축제 기간으로 누구에게나 물을 뿌릴 수 있고 물세례를 받는 사람도 즐거워한다. 물을 뿌리는 의미는 더위를 해소하고 좋지 않은 기억과 욕을 때를 벗기는데 있다.

차. 여행시 유의 사항

1) 위험 지역

외국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양곤 지역은 군사 정부의 강력한 통치 때문에 밤에 혼자서 길을 거닐어도 될 만큼 안전하다. 미얀마 국민 대다수는 불교의 영향으로 매우 온순한 편이며, 외국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 다만 나이트 클럽, 가라오케 등에서는 현지인과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팁 관행

시내에서 택시를 탈 경우 요금 외에 별도의 팁을 줄 필요가 없다. 호텔, 공항 등에서 포터가 짐을 옮겨줄 경우, Ks 500 또는 1달러 정도를 팁으로 지불하면 된다. 음식점에서는 별도의 팁을 주는 것이 의무 사항은 아니나 관례상 음식값을 지불하고 난 잔돈을 팁으로 남겨놓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Ks 4,750 이 음식값으로 나 왔으면 Ks 5,000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팁으로 남겨놓는다. 또는 Ks 1,000 또는 미화 1달러 정도를 팁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3) 식수 및 보건 위생

물은 반드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거나 끓여 마셔야 한다. 알파인, 오아시스, 임페리얼 제이드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말라리아와 뎅기열과 같은 모기가 옮기는 풍토병에 조심해야 한다. 양곤의 경우, 말라리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심할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뎅기열은 가끔씩 발병한다.

4) 문화적 금기 사항

미얀마는 135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써 버마족이 70%, 산족, 몬족, 카렌족 등 미얀마 소수민족과 중국계, 인도계 등 다양한 기타종족이 나머지 30%를 구성하고 있으며, 종교 역시 불교가 9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역시 다양한 종족과 종교 간 문화가 뒤섞인 가운데 이웃한 인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편이다.

미얀마에서 명함이나 선물을 건넬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 왼손은 불결하다고 생각하며 화장실 용무를 볼 때를 빼고는 모두 오른손을 사용한다. 아울러 외국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나 외부에서는 수저나 포크 등을 사용하지만 집에서 자신들끼리 식사할 경우 많은 사람이 맨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식사에 초대할 경우, 메뉴 선정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미얀마 인은 쇠고기를 먹지 않으며, 일부는 돼지고기 역시 먹지 않는다. 따라서 가장 무난한 메뉴는 닭고기와 생선으로 이루어진 요리이다.

미얀마 기업인에게 명함은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는 사무직이나 영업직 직원 대부분이 명함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사장을 제외하고는 명함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일정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명함을 소지하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명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함을 건네지 않을 때 재차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례가 된다.

미얀마에서 여성의 사회 활동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편이지만,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시각이 압도적이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 여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더더욱 찾기 어렵다. 술과 담배를 한다면 직업을 의심해볼 수 있으며, 여성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이런 사회 분위기와 결례가 된다. 여성과 인사를 할 때도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목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미얀마는 과도기적 군사정부체제로써 민주화, 인권, 마약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경제제재 조치를 받고 있으며, 체제 유지를 위해 극도의 정보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웅산 수지 여사 등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금물이다.

미얀마인들의 공식복장 및 평상 복장은 남녀 모두 론지(미얀마 전통의상으로 발목까지 내려 오는 치마의 일종)에 슬리퍼(엄지발가락을 별도로 끼워 넣는 한국의 신발굽 없는 쪼리)이며, 미얀마 남성이 한국 개념의 치마를 입는 것 역시 미얀마 고유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정부 관계자 중에는 현역 군인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무실에서 늘 군복을 입고 있다. 군인의 위치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대화 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카. 유용한 연락처

□ 항공사, 병원

- 타이항공: (95-1) 255499
- 미얀마항공: (95-1) 255440
- 실크에어: (95-1) 255287
- 아시아로알병원: (95-1) 538055
- 사쿠라병원: (95-1) 510186

한국 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이메일/웹사이트	비고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	97, University Avenue	(95-1) 527142~4 myanmar@mofat.go.kr www.mofat.go.kr/myanmar	영사담당 권재환 서기관
KOTRA 양곤 무역관	9th Fl, Sakura Tower, Bogyoke Aung San Rd.	(95-1) 255453~6 kotraygn@kotraygn.com.mm www.kotra.or.kr/yangon	총무담당 김종상 과장
한인회	12B,Thalawaddy Road, 7mile	(95-1) 663288 hanin@mptmail.net.mm	총무담당 김혜명 사무장

비즈니스 관련 현지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이메일	비고
미얀마 상공회의소	29, Minyekyawswa Rd, Lanmadaw ownship, Yangon, Myanmar	(95-1) 214344~9 umcci@mptmail.net.mm	Mr.Win Myint (President)
미얀마 투자위원회	Office No.17, Naypyidaw, Myanmar	(95-1)406089, 406334 DICA.NPED@mptmail.net.mm	Mr.Kyaw Zaw (Deputy Director General)

타. 관광 명소

양곤 공항을 통해 미얀마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15만 명 정도이며, 한국 관광객은 불교 신자를 중심으로 매년 3,000~4,000명 정도 미얀마를 방문한다. 양곤은 1855년부터 미얀마의 수도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으나 시내에는 미얀마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쉐다곤 파고다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매력적인 관광지는 없다. 보석 박물관, 국립 박물관, 보조마켓 등이 그나마 추천 가능하다. 파고다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신발은 물론 양말까지도 벗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여유가 있다면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만달레이, 바간, 인레호수 등 지방 도시 여행을 추천한다. 바간은 11-13세기 건립된 2,000여 개의 불탑 및 사원이 보존된 지역으로 외국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만달레이는 미얀마 마지막 왕조의 수도로서 왕궁, 불교 사원 등의 유적이 있고 인근에는 아무라프라, 사가인, 피눌린 등 유적지가 산재해 있다. 인레 호수는 길이 22Km, 폭 10Km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지닌 호수로 발로 노를 젓는 뱃사공을 보는 재미와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다.

미얀마에서 구입할만한 선물로는 목각제품, 라커 웨어, 은세공품, 유화 등이 있으며 보조 마켓에서 구입 가능하다. 보조마켓은 외국 관광객들의 방문 필수 코스로 다양한 기념품과 소품을 구입할 수 있고, 제이드,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류 또한 구입 가능하다. 경찰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건값을 흥정하는 재미는 있으나 대부분의 상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바가지를 씌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격 흥정은 필수적이다.

1) 양곤 지역

양곤 최대의 관광명소는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이다. 금(Shwe 는 “Golden”의 의미)으로 된 다곤의 불탑 파고다라는 의미로, 미얀마인의 신성한 종교 성지이다. 2500년 전 고타마 싯다르타 부처의 생존 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성발을 얻어와 안치한 후 불탑을 건립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초기 쉐다곤 파고다는 약 20미터에 불과했으나 계속 증축되어 현재 높이인 99미터에 이르렀다.

1372년 바고의 한따와디 왕조 빈나우가 파고다를 재건 하였으며, 1455~62년까지 신소부 여왕이 테라스를 만들었으며, 파고다 상단에서 하단까지 자신의 몸무게와 같은 양의 금으로 금박을 입히기도 하였다. 신소부 여왕의 오빠인 빈냐기안은 파고다의 높이를 302피트(약 90.6미터)로 증축하였다. 역대왕들이 쉐다곤 파고다에 많은 시설물들을 기증 하였으며 공파웅 왕조의 신류신 왕비는 자신의 몸무게와 같은 무게의 금으로 금박을 입히며 파고다를 현재의 높이 (99m)로 증축하였다. 1788년에는 싱구왕이 16톤의 동종을 기부하였으며 1841년 따라와디 왕이 파고다 북동쪽 구석에 40톤짜리 동종을 기부하였다.

쉐다곤 파고다 경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따자웅이란 주변의 건물들이다. 따자웅은 1857년 민돈왕의 명에 의해서 건립이 시작되어 그 안에 많은 불상을 보존하고 있다. 이 건물들은 1895년에 전면 보수하였고, 1931년 화재로 인해 거의 전소되었다가 1941년에 다시 개축되었다.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불교 유적지일 뿐만 아니라 미얀마 불교의 많은 관습과 전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쉐다곤 파고다는 여느 파고다와 마찬가지로 맨발 상태에서만 입장이 가능하다. 내국인은 무료이며, 외국인인은 입장료 5달러를 내야 한다.

쉐다곤 파고다와 함께 외국인 관광 명소로 유명한 곳은 보조마켓이다. 양곤 최대 소매시장으로 미얀마 중상류층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필수 방문 코스이며, 본관(Main Shed)과 A, B, C, D관(Shed) 등 총 5개 관으로 되어있다. 본관 931개 매점(Stall)을 포함, 총 1,840개 매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비, 사파이어, 금 등 보석류, 그림(유화, 수채화), 칠기, 목각 제품 등 공예품, 의류, 핸드백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926년 영국 식민지 시대에 양곤시장(Mayor) Mr. Jar Vin Scott 이름을 따서 Scott Market 으로 문을 열었으며, 독립 후 아웅산 장군 이름을 따서 Bogyoke Aung San Market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 만달레이 지역

양곤 북방 622km에 위치한 만달레이 시는 인구 약 60만의 미얀마 제2의 도시로 미얀마 문화의 발상지이자 중심지이다. 만달레이는 Konbaung 왕조의 수도였으며 부근에 Mindon 왕이 25년간(1853-78)에 걸쳐 건립한 Kyauk Tawgyi Pagoda를 비롯 729기의 아름다운 대리석탑을 자랑하는 Kouthodo 등 수많은 문화 명소를 보유하고 있다. 양곤에서 비행기로 약 1시간 10분 걸린다.

3) 바간 지역

만달레이시 북서부 193km에 위치한 바간 주변에는 불교 전성기인 11~13세기 중 건립된 2,000여 기의 석탑이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의 불심을 재인식시켜주는 곳 이다.

특히 Ananda, Sulamuni, Thatbyinnyu, Gaw Daw Palin, Htiloinlo Shwezigon Pagoda와 바간왕조(9~13세기)의 역사적 유물이 많이 남아 있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미얀마는 2005년 이후 국제 전시회의 개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까지 국제 전시회가 개최된 바가 없다. 국내 전시회는 보석박람회(Jade Emporium)가 연평균 2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나 일정을 미리 알기는 불가능하다. 그 외 전시회로는 ICT박람회가 있으나 전시회라기보다 B2C 판매 프로모션 수준에 머물러 있다.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미얀마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해 기업이나 공공기관 중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다.

무역투자관련 유관기관으로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미얀마연방상공회의소(UMFCCI)가 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없으며 미얀마연방상공회의소 웹사이트는 www.umfcci.com.mm이다.

기타 미얀마 관공서 등 관련 웹사이트는 www.myanmar.com을 참조하면 된다.